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 배우자의 은퇴 여부 및 은퇴 자발성을 중심으로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함 선 유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 배우자의 은퇴 여부 및 은퇴 자발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홍 백 의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함 선 유

함선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_____ 안 상 훈 (인)

부 위 원 장 _____ 박 정 민 (인)

위 원 _____ 홍 백 의 (인)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연구

- 배우자의 은퇴 여부 및 은퇴 자발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함 선 유

은퇴 연구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연금재정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인 맥락과 고령자의 삶의 질 등의 사회·심리적 맥락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은 대부분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부는 가구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동반의사결정과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은퇴결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개인의 변수뿐만 아니라 배우자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가 일반적인 현대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배우자의 은퇴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은퇴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해외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은퇴 맥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은퇴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노후소득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와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건강문제나, 실업 등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동소득은 여전히 고령자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추가노동자효과와 낙담효과로 설명하였다.

부부의 은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서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도구변수추정법과 이변량프로빗, 다변량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의 은퇴는 서로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동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볼 경우 불일치 추정량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은퇴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로, 2012년에 실시된 4차 패널을 활용하되, 은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1~3차 패널로 보완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은 생애 노동참여 경험에 있는 부부 1,038 쌍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인다. 이 결과는 은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은퇴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 연령의 남성, 50대 여성 그룹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부부의 학력, 직업, 종사상의 지위가 높은 연관성을 갖는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부부의 은퇴 영향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세하나, 여성의 돌봄 역할 등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를 예측하는 데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의 은퇴 과정에서 전통

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남편은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은퇴 가능성이 줄어드는 추가노동자 효과가 관측된 반면, 50대 아내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동반 은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구의 맥락, 특히 배우자의 은퇴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특성만을 살펴본 기존 국내 은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한 부부의 동반은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 하락 및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의사결정 시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은퇴 결정 전반에 있어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맥락, 특히 건강문제로 인한 돌봄 역할 수행은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자원은 우세하나, 남성에 비하여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잦으며, 남편에 종속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갖는 비율이 높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의 동반은퇴를 관측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생애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 전체 노인집단을 대변하지 못한다. 또한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변수의 측정이 2012년 현재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부 변수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은퇴한 이들 중 은퇴 시점이 오래 경과한 경우는 은퇴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와 현재의 시간차로 인하여 추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은퇴, 동반은퇴, 부부의 의사결정, 비자발적 은퇴, 이변량프로빗, 노인복지

학 번: 2013-20124

- 목 차 -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 2절 연구 문제	5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6
제 1절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결정의 원인	6
1. 소비-여가에 대한 취향: 부부의 보완적 여가	8
2. 예산제약: 일출효과	9
제 2절 가구의 동반노동공급결정	12
1. 추가노동자효과	13
2. 낙담효과	14
제 3절 부부의 의사결정과정	16
1. 가부장형 의사결정	17
2. 여성우세형 의사결정	18
제 4절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1. 개인의 특성	20
2. 가구 특성	23
제 3장 연구방법	24
제 1절 연구가설	24
제 2절 자료와 측정	26
1. 자료	26
2. 측정	27
제 3절 분석방법	32

제 4장 연구결과	35
제 1절 기술통계	35
1. 연구대상 집단의 주요 특성	35
2. 은퇴 관련 주요 특징	42
제 2절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분석	48
1.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48
2. 배우자의 은퇴 자발성이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52
3. 연령그룹에 따른 배우자의 은퇴 결정 요인	56
제 5장 결론	57
제 1절 연구 요약	57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61
1. 연구의 함의	61
2. 연구의 한계	63
참 고 문 헌	65
부 록	72
Abstract	81

표 목차

〈표 3- 1〉 배우자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배경	25
〈표 3- 2〉 배우자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25
〈표 3- 3〉 변수 속성 및 측정수준	31
〈표 4- 1〉 연구대상 집단의 기술통계	36
〈표 4- 2〉 부부의 교육수준	38
〈표 4- 3〉 부부의 종사상의 지위	39
〈표 4- 4〉 부부의 직업	41
〈표 4- 5〉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1): 전 연령	42
〈표 4- 6〉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2): 연령그룹별	43
〈표 4- 7〉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3): 부부의 은퇴	44
〈표 4- 8〉 남편의 은퇴 결정 영향 요인 분석	50
〈표 4- 9〉 아내의 은퇴 결정 영향 요인 분석	51
〈표 4-10〉 아내 은퇴의 자발성이 남편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54
〈표 4-12〉 연령그룹별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분석	56

그림 목차

[그림 4-1] 부부의 교육수준 통혼표	38
[그림 4-2]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의 학력	39
[그림 4-3]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의 종사상의 지위	40
[그림 4-4]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 직업(상위 5가지 경우)	41
[그림 4-5] 연령별 남녀 은퇴율	43
[그림 4-6] 연령별 부부의 은퇴	44
[그림 4-7] 연구대상자의 은퇴원인	45
[그림 4-8] 부부의 은퇴원인	46
[그림 4-9] 부부의 연령차와 은퇴년도차	47

부표 목차

〈부표 1〉 남성 연령그룹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72
〈부표 2〉 여성 연령그룹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73
〈부표 3〉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74
〈부표 4〉 남편의 연령그룹별 은퇴 결정요인 분석	75
〈부표 5〉 아내의 연령그룹별 은퇴 결정요인 분석	76
〈부표 6〉 60세 미만 남편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아내 은퇴의 자발성	77
〈부표 7〉 60세 이상 남편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아내 은퇴의 자발성	78
〈부표 8〉 60세 미만 아내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남편 은퇴의 자발성	79
〈부표 9〉 60세 이상 아내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남편 은퇴의 자발성	80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은퇴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질과 연금제도 및 사회복지 지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은퇴 유예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OECD, 2006). 이 때문에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 공식은퇴연령을 높이고 연금수급연령 이후 노동 참여 시 연금증액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연금개혁이 추진되었다(OECD, 2013a). 개인의 학력이나 건강, 주된 일자리 특성 등에 따라 노동 기회가 줄어드는 퇴출요인(push factor)을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여러 국가에서 연령차별금지법안을 도입하고 저숙련 고령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정책 등도 시행하였다(OECD, 2006).

그러나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개인의 특성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은 주로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England and Farkas, 1986) 은퇴는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합리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Zweimüller, Winter-Ebmer, and Falkinger, 1996). 또한 부부는 가구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동반 의사 결정 과정(joint decision-making process)을 사용하므로(Ehrenberg and Smith, 2012), 은퇴 결정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개인의 변수뿐만 아니라 배우자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가 일반적인 현대 가구에서¹⁾ 배우자의 은퇴는 은퇴에 영향을

1)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1980년 49.3%에서 2013년 55.6%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13년 현재 40~59세 부부 49.9%는 맞벌이다(통계청, 2014).

미치는 핵심 변수다. 과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가구마다 한 명의 소득원, 한 번의 은퇴만이 이뤄지므로, 은퇴를 남성의 생애말기 이벤트로만 여겼다(Denaeghel, Mortelmans, and Borghgraef, 2011). 그러나 가구 내 두 명의 소득원, 두 번의 은퇴를 겪는 오늘날 맞벌이 가구의 은퇴 결정은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실제 여러 경험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은퇴는 서로의 은퇴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부부의 은퇴는 그들의 평균적인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에 이뤄지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Honoré and De Paula, 2014). 이 같은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금소득 등 개인의 은퇴 결정 요인의 효과를 과대평가 하거나(Hospido and Zamarro, 2014)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Michaud, Van Soest, and Yu, 2014). 배우자의 노동 상태를 통제할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이 은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경우 2%p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Hospido and Zamarro, 2014).

본 연구는 이처럼 은퇴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은퇴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최승현, 2006; 한경혜, 2008;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가 이뤄진바 있으나, 배우자의 은퇴여부를 변수로 확인하지 않아 은퇴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연구방법에서도 부부의 은퇴가 서로에게 동시에(simultaneously)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 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배우

2)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북유럽(Syse, Solem, Ugreninov, Mykletun, and Furunes, 2014)과 남유럽(Radl and Himmelreicher, 2014)을 포함한 여러 유럽국가(Hospido and Zamarro, 2014)와 호주(Zhu, 2014)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브라질(Queiroz and de Souza, 2013)에서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성이 관측되었다.

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성을 고려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은퇴자가 건강문제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은퇴하는 한국의 은퇴환경 역시 주목하고자 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부부의 보완적 여가 취향(Gustman and Steinmeier, 1994, 2000, 2002, 2004; Hurd, 1990; Michaud, 2003; Michaud et al., 2014; Syse et al., 2014; Zhu, 2014), 두 번째는 배우자의 연금소득과 같은 은퇴인센티브의 일출효과다(Coile, 2004a; Guo, 2013; Honoré and De Paula, 2014; Queiroz and de Souza, 2013). 많은 연구가 이 두 가지로 귀결하는 까닭은 은퇴를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최대효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경제학의 틀 안에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후소득보장책의 미성숙으로 대다수의 노인이 비자발적으로 은퇴한다. 국민연금은 시행시기³⁾와 보장범위⁴⁾, 소득대체율⁵⁾에서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 소득은 여전히 고령자의 주요한 소득원이다(OECD, 2013a).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연금소득은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며(김원섭·우해봉, 2008; 이기주·석재은, 2011),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문제로 은퇴한다(김지경, 2005; 우혜경·조영태, 2013). 따라서 은퇴를 자발적 선택으로 전제한 선행연구의 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구동반노동공급 결정에 관한 논의로 부부은퇴과정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경기침체

3)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 이후 1993년 처음으로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완전노령 연금은 2008년 최초수급자가 발생하였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고).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동력의 80%(OECD 평균: 87%), 노동연령인구의 54%(OECD 평균: 65%)만이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범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14b).

5) 2012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 40%(OECD평균: 54%), 저소득자 기준 59%(OECD 평균: 71%)로 낮은 수준이다(OECD, 2014b).

기 가구동반노동공급에 관한 논의는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은퇴를 미루는 추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와 배우자와 유사한 사유로 함께 은퇴한다는 낙담효과(discouraged effect)의 상반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의 은퇴 의사결정과정도 확인해보겠다. 경제학에서는 그룹의 의사결정을 소속된 개인의 합이라고 보거나, 가구가 단일하나의 선호를 가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제는 부부의 상호의존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부부는 보상, 비용의 불균형에 의해 관계가 종료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교환을 하게 되고, 이는 불평등한 권력구조로 이어진다(신명일·김우식, 2004).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은퇴 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이 관측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행연구(최승현, 2006;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에서도 은퇴결정에 미치는 배우자 특성은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의 성별 비대칭성을 확인하고 성역할에 초점을 맞춘 젠더이론(gender theory)과 사회적 지지망을 강조한 자원이론(resource theory)으로 이를 해석해 보겠다.

제 2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은퇴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은퇴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고령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은퇴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발적인 은퇴의 영향과 다른지를 확인해보겠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가 상이한지 살펴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남편(아내)의 은퇴는 아내(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남편(아내)의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의 자발성에 따라 상이한가?

연구문제 3.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은퇴가 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가?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는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의존성이란 상대방의 결정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결정 역시 상대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말한다. 부부는 가구의 소비와 저축을 함께하며(England and Farkas, 1986), 가정 내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각자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함께 결정한다(Ehrenberg and Smith, 2012). 따라서 부부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일 수 없으며, 은퇴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이뤄진다. ‘동반은퇴(joint retirement)’로 불리는 부부의 은퇴 시점 일치하는 부부의 이 같은 상호의존적 은퇴의 결과로 주목 받아왔다(Casanova, 2010; Guo, 2013; John C Henretta and Angela, 1983; Ho and Raymo, 2009; Honoré and De Paula, 2014; Hurd, 1990; O’Rand and Farkas, 2002).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동공급과 가구의 노동공급, 부부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제 1절 부부의 상호의존적 은퇴결정의 원인

노동 참여 결정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결정이다(Ehrenberg and Smith, 2012). 개인은 여가와 노동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여가의 기회비용(임금), 부와 소득, 개인의 선호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과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으로 그려진다. 무차별곡선은 소비와 여가에 대한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곡선이며, 예산제약은 임금(여가의 기회비용)과 부를 의

미한다. 개인은 주어진 예산제약 안에서 최대의 효용을 선택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다.

경제학에서는 임금과 소득의 변화가 노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임금률(wage rate)이 고정된 상황에서 불로소득(Non-labor income)이 증가할 경우, 개인은 증가한 소득으로 인하여 노동 참여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된다(소득효과). 반면, 임금이 증가할 경우 여가의 기회비용 증가로 노동 참여 시간을 늘릴 수도(대체효과), 소득증가에 따라 노동참여 시간을 줄일 수도(소득효과) 있다. 이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인의 여가와 소비에 대한 취향에 따라 소득효과가 우세할 수도, 대체효과가 우세할 수도 있다(Borjas, 2005; Ehrenberg and Smith, 2012; Mankiw, 2013).

이를 생애노동공급으로 확장하면 은퇴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은퇴시점은 생애 소득과 자산, 연금 등의 예산제약과 소비와 여가에 대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된다(Ehrenberg and Smith, 2012). 부부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므로, 배우자의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나 은퇴의 금전적 인센티브(연금)는 예산제약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부가 은퇴 후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할 경우 배우자의 은퇴 여부에 따라 은퇴 유인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부부의 은퇴에 적용해보면 소득효과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대체효과는 여가에 대한 부부의 선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득효과 측면에서 배우자의 은퇴로 감소된 소득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은퇴를 유예하게 하지만, 대체효과는 3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여가 결정이 독립적인 경우로, 대체 효과는 배우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체효과 없음). 두 번째, 만약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이며 부부가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배우자의 은퇴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더 빨리 은퇴하

게 할 것이다(정적 대체효과). 마지막으로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으로 이뤄지지만, 함께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은퇴는 상대의 은퇴를 늦출 것이다(부적 대체효과)(Zhu, 2014). 따라서 부부의 여가 결정이 상호의존적이며,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할 때 배우자의 은퇴가 상대의 은퇴를 촉진시킨다.

이 같은 노동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부부은퇴 연구의 결론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부부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취향(무차별곡선)이고, 두 번째는 가구소득(예산제약)의 변화다.

1. 소비-여가에 대한 취향: 부부의 보완적 여가

부부은퇴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동반은퇴의 주요 원인으로 부부의 여가에 대한 선호를 주목하였다. 은퇴는 가구의 예산제약을 강화하여 노동공급을 유지 혹은 확대 시키는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소득효과),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정적 대체효과).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은 은퇴 후 여가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자 하는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를 동반은퇴의 원인으로 보았다(Gustman and Steinmeier, 1994, 2000, 2002, 2004; Hurd, 1990; Michaud, 2003; Michaud et al., 2014; Syse et al., 2014; Zhu, 2014).

기존 연구에서 부부 동반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에 관한 선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완적 여가를 의미하는 관측 가능한 선호(observable preference)와 여가에 관한 유사한 취향 등의 관측 불가능한 선호(unobservable preference)다(Michaud et al., 2014). Gustman and Steinmeier (2004)은 구조적 모델(structural model)을 통해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이 예산 면의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선호로 인한 것이며, 여기서 선호는 부부 선호의 상관관계(유사한 취향 등, 관측 불가능한 선호)가 아닌,

배우자가 은퇴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보완적 여가, 관측 가능한 선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04년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은퇴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보완적 여가가 동반 은퇴에 주요 결정 요인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부부의 은퇴와 보완적 여가를 다룬 연구는 없지만, 일부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 후 여가취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50~60세 중고령 미은퇴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⁶⁾ 은퇴 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울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남편 87%가 아내를, 아내 65%가 남편을 꼽아, 부부 모두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일정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⁷⁾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65세노인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여가생활을 즐겼으며(여 53.7%, 남 47.4%),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남 8.7%, 여10.1%). 또한 남성 노인의 경우 37.2%가 혼자서 여가생활을 즐기며, 여성의 경우도 30.1%가 혼자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응답하였다. 즉,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예산제약: 일출효과

부부은퇴에 관한 후발 연구들은 동반은퇴의 원인으로 개인의 은퇴 인센티브가 배우자의 은퇴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주

6)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부부 은퇴 생활, 기대와 현실’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미은퇴자 부부 100쌍과 은퇴자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4-5-21, 은퇴자의 아내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

7) 노인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여기서 인용된 자료는 2011년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응답 원자료를 분석하여, 남성 1,193명, 여성 795명 중 비율을 나타낸다.

목하였다. 연금 수급연령과 연금액 등 개인의 은퇴에 재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oile, 2004a; Guo, 2013; Honoré and De Paula, 2014; Queiroz and de Souza, 2013). 관대한 연금액은 연금 수급자의 은퇴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도 은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금은 대체효과 없는 소득효과로 작용하여 은퇴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oile (2004a)는 동반 은퇴를 여가의 상호보완성으로 설명한 여러 초기 연구들이 연금(Social Security)에 관한 정보가 빈약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조적 모델은 가구 행동의 특정 모수를 필요로 하는데, 만약 선택한 구조가 정확하다면 모델은 효용 모수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만하나, 구조가 잘못됐다면 결과를 편향시킬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조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Coile (2004a)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바탕으로 축약(reduced-form) 분석을 통하여 배우자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상대 배우자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를 확인하였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매우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은퇴소득의 일출효과를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1인당 연평균수급액은 360만원 정도로 작으며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소득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다⁹⁾. 여러 경험연구에서도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 604쌍을 대상

8) 국민연금공단의 『2013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연중 수급액과 수급자수를 나눈 수치로, 2013년 연중 총 수급자의 수는 3,653,133명이며 이들의 총 수급액은 13,112,751,419,000원이다.

9) 중위소득자 기준 OECD 평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Net pension replacement rates)은 69.1%인 반면, 한국은 49.1%를 기록하였다(OECD, 2013a).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율과 완전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소득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한 최승현 (2006)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공적연금 기대자산의 가치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노후보장패널 1차 조사(2005년)에 응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상태에 따른 은퇴 연령의 차이를 살펴본 김원섭·우해봉 (2008)의 연구에서 국민연금 적용상태는 은퇴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기주·석재은 (2011)이 국민연금 기대자산 증분(accrual)과 peak value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미성숙한 단계로,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은퇴 결정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재정적 은퇴인센티브가 자신의 은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 여건에서 배우자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절 가구의 동반노동공급결정

경제학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며, 최상의 대안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홍훈, 2013).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비자발적 은퇴”라는 개념에 회의적이다(Johnson and Favreault, 2001). 1절에서 살펴본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의 주요 원인 역시 은퇴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가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가정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이 은퇴로 이어지는 현실세계의 은퇴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건강문제와 실업이 은퇴 결정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김지경, 2005; 우혜경·조영태, 2013) 비자발적인 은퇴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상대의 은퇴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부부 은퇴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기침체기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노동시장퇴출이 상대의 노동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추가노동자효과와 낙담효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추가노동자효과란 가구 내 주 수입원이던 남편이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서 하락한 가구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여성 배우자가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게 됨을 말한다. 반면, 낙담효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하여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줄어드는 효과를 말한다(Ehrenberg and Smith, 2012; 박진희, 2009).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추가노동자효과는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직업을 잃은 일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업보험 수당에 의하여 추가노동자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Ehrenberg and Smith, 2012).

1. 추가노동자효과

추가노동자효과 관점에서 부부의 은퇴 결정을 설명한 연구는 드물다. 부부의 은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진 선진국에서는 실업이나 은퇴로 인한 소득 상실은 국가에 의해 보전되어 부가노동자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Syse et al., 201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조기 은퇴 시 상대는 은퇴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Johnson and Favreault (2001)은 HRS의 1992-1998년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은퇴 여부와 건강상태가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자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떠났을 때, 특히 배우자가 연금(Social Security)의 자격을 갖지 못했을 때 은퇴 경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장애로 인하여 은퇴하였을 때 돌봄 제공을 위하여 함께 은퇴한다는 가설도 설정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인한 추가노동자 효과가 남성에게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Coile (2004b)는 미국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HRS)를 이용해 50~60대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장마비 또는 암 진단과 같은 예기치 못한 건강문제가 가구소득과 부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러한 건강쇼크(Health shock)로 가구는 상당한 소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쇼크를 경험할 경우 남편의 노동공급은 다소 증가하여 추가노동자효과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의 건강쇼크로 인하여 아내의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의 건강쇼크로 인한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편의 쇼크가 심각할 때 노동공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낙담효과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Radl and Himmelreicher (2014)은 Eurostat가 관리하는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의 독일과 스페인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성과 은퇴의 자발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스페인과 독일 모두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교육수준의 동질성이나 지역적 노동시장 상황, 고용리스크에 대한 유사한 노출 등 부부가 공유한 실직과 관련한 관측되지 않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흡연과 식이 등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 부부가 건강문제로 함께 조기은퇴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배우자가 건강문제로 은퇴할 때 간병을 위하여 동반 은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urope Community Household Panel을 활용하여 유럽 12개국의 부부은퇴 살펴본 Jiménez-Martín, Labeaga, and Martínez-Granado (1999)의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부부의 은퇴 확률을 높이거나, 이러한 효과는 남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나쁜 건강상태(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의사 진찰을 자주 받은 경우)는 부부 모두의 은퇴를 1~5.5% 정도 상승시키는 반면, 아내의 나쁜 건강상태에 따른 동반은퇴의 확률은 거의 없었다. 저자는 남편이 건강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날 경우 여성은 돌봄 제공의 이유로 은퇴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국내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추가노동자효과에 비하여 낙담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2009). 유배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진희 (2009)의 연구는 이러한 낙담효과가 동종 혼 assortative mating)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학력이나 소득 등이 유사한 이들끼리 결혼하는 동종 혼으로 인하여 부부가 직면하는 노동시장 상황이 유사하며, 이로 인하여 유사한 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낙담효과에 의한 동반은퇴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 3절 부부의 의사결정과정

경제학에서 선택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집단이나 사회의 선택은 부정되거나 개인의 합으로 전환된다(홍훈, 2013).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가구의 의사결정 역시 가구가 하나의 효용함수를 가졌다고 보거나(Manser and Brown, 1980), 가구원의 합을 가구 전체의 집계(aggregation)로 가정한다(홍훈, 2013).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세계를 해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부부는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다(England and Farkas, 1986). 가구원의 효용함수가 다를 경우 가구효용을 통합된 하나의 틀로 본 가정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Manser and Brown, 1980). 두 번째로 결혼은 교섭과 협상이 지속적인 특징을 가진다. 결혼이 현물 시장(spot-market)이라면 상대가 불쾌하거나 더 매력적인 상대자가 있을 때 단순히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의사결정 과정은 생애에 걸쳐 반복적인 권고와 교환의 혼합으로 이뤄지므로(England and Farkas, 1986)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효용의 합을 부부의 효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부은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부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은퇴 결정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의견이 다를 때 “네가 만약 무엇을 한다면(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게(하지 않을게).”라는 형태로 교환을 제안할 수 있다(England and Farkas, 1986). 이 같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자가 지닌 자원(resource)이다.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더 적은 자원을 가진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더 의존하게 되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배우자가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신명일·이우식, 2004).

그러나 젠더이론(Gender theory)은 이러한 자원이론의 도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이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은 부부에게 남편의 실직과 같은 자원 감소는 남편의 권력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임인숙, 2000).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성으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같을지라도 높은 소득의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우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동보다는 가족원의 돌봄 등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김지경, 2005).

부부은퇴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는 부부은퇴의 비대칭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 미치는 영향이 우세하다는 결과(Denaeghel et al., 2011; Hospido and Zamarro, 2014), 아내가 남편에 미치는 영향이 우세하다는 결과(Coile, 2004a; Gustman and Steinmeier, 2004; Zhu, 2014),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Ho and Raymo, 2009; Syse et al., 2014)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할 경우 가부장형 의사결정으로, 노후의 사회적 자원을 강조할 경우 여성우세형 의사결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가부장형 의사결정

전통적으로 가구 내 자원의 배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젠더-비대칭적으로 특성화된다. 결혼 관계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역사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가부장의 결정이다(Henkens, 1999).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남편의 커리어는 우위를 차지하며, 여성의 가구 밖 노동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Ho and Raymo, 2009). 이는 부부의 은퇴 결정과정에도 적용된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남편이 아내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아내가 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가부장형 의사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Henkens, 1999).

이러한 가부장형 의사결정은 은퇴자가 사는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Denaeghel et al. (2011)은 세대(cohort) 관점에서 가부장적인 젠더 역할을 공유한 현재 노인 세대에 비하여 젊은 세대에서는 현대적인 평등주의적 젠더 역할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현재 은퇴 연구의 대상인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성의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향후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2. 여성우세형 의사결정

배우자는 은퇴자가 은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지 시스템이다. 특히 은퇴 후 부부는 역할 상실의 시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신화용·조병은, 1999). 그러나 배우자 이외에도 큰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진 이들은 배우자의 행동에 덜 의존적이며,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가진 배우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편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내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Henkens, 1999). 따라서 여성의 은퇴 적응은 남성에 비하여 그들의 배우자의 지지와 행동에 덜 의존하게 된다. 부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이 같은 노후의 사회적 지지 자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여성우세형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은퇴 결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영향을 검토한 국내 두 선행연구(최승현, 2006;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에서는 은퇴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영향이 남성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연구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관계망 유형에 대한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시한 임소영 외

(2013) 연구에서 남성의 사회관계망은 동거자녀중심형(6.20%), 배우자 중심형(22.56%), 배우자 및 비동거자녀 중심형(59.82%), 광범위형(11.42%)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주요한 반면, 여성은 동거자녀 중심형(28.06%), 제한형(7.15%), 친구이웃중심형(24.99%), 광범위형(39.80%)으로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보다는 친구 및 이웃, 비동거자녀 등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한 50~69세 예비노인 1,711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지현 외(2012)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 빈도가 1주일에 수차례인 비율이 27.7%인 반면, 남성은 18.7%이며, 평소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구의 비율도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높았다(남 45.8%, 여 53.8%). 이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 이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 부부의 가사역할 수행은 약 70% 정도가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신화용·조병은, 1999)에서도 남성의 여성의존도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절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는 여러 사회적 맥락과 여러 동기 하에 이뤄지는 행동이다(Ekerdt, 2010). 많은 학자들이 은퇴의 맥락과 동기를 파악하고 은퇴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의 특성

연령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다. 연령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수 있다. 첫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은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김원섭·우해봉, 2008; 이기주·석재은, 2011; 조동훈, 2014;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Hospido and Zamarro, 2014; Syse et al., 2014; Zhu, 2014). 연령 증가에 따른 은퇴는 고령자에 대한 낮은 노동 수요나 특정 노동시장으로의 특성화, 노인의 노동에 대한 규범적 가치의 반영일 수 있다(Ekerdt, 2010). 이는 연령차별주의와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은 55~58세로 정해져 있으며, 50%에 가까운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박경숙, 2003). 실제로 고령자는 재취업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 제한을 비롯한 직접적 차별과 함께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차별적 표현 등 연령으로 인하여 직업 활동 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국희·주경희·이연순, 2012). 이처럼 연령에 따른 고용제약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애 주된 직장을 유지하거나,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낳는다.

연령이 은퇴를 예측하는 두 번째 측면은 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는 연령에 도달할 경우 은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다(Hospido and Zamarro, 2014). 이 같은 제도적 영향은 국가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발달

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국민연금수급 연령은 은퇴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¹⁰⁾.

은퇴를 예측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건강상태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 변수는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문일, 1996; 김원섭·우해봉, 2008; 우혜경·조영태, 2013; 이기주·석재은, 2011; 최승현, 2006). 해외의 연구에서도 나쁜 건강 상태는 은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Denaeghel et al., 2011; John C. Henretta, Chan, and O'rand, 1992; Hospido and Zamarro, 2014; Zhu, 2014). 건강상태의 측정은 연구에 따라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으로 나뉜다. 객관적 측정은 ADL이나 만성질환 등과 같은 실질적 건강 지표를 나타내며, 주관적 측정은 인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판단이다(장지연·부가청, 2007).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인데, 이는 실질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응답에 있어서 ‘ 좋음’보다는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문화적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3b). 또한 통상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 시 이러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 역시 은퇴의 결정요인이다. 다른 가족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노동을 그만두게 된 상황을 ‘근대적 은퇴’로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른 자산의 축적과 공적 연금 제도의 확립은 은퇴로 중단된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게 한 요인이다(박경숙, 2003). 실제로 소득의 증가는 국내(권문일, 1996)와 해

10) 한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pensionable age)은 60세로 OECD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가장 낮으나, 실질 은퇴 연령은 71세에 이르러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34개 OECD회원국 중 22개국에서 연금수급연령에 비해 실질은퇴연령이 낮은 조기은퇴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대조된다.

외(Syse et al., 2014)에서 모두 은퇴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 가구 소득에는 연금 소득도 포함되는데, 부부의 공적연금 기대자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승현, 2006)와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상대에 미치는 일출효과를 탐색한 연구(Coile, 2004a) 등 여러 연구에서 연금 소득 수준 역시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액 등을 고려할 때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다(김원섭·우해봉, 2008; 이기주·석재은, 2011).

교육수준도 여러 연구에서 은퇴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enaeghel et al., 2011; Honoré and De Paula, 2014; Hospido and Zamarro, 2014).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대부분 고학력자일수록 은퇴 위험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김원섭·우해봉, 2008; 최승현, 2006;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그러나 조동훈(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로 교육수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일 때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¹¹⁾.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고졸 미만을 기준변수로 잡고, 고졸과 초대졸, 대졸 이상을 비교한 결과로,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직업적 특성으로는 다양한 변수들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사무직이며, 기업규모가 크고, 직업안정도가 높을수록 은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권문일, 1996).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은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와 해외(Radl and Himmelreicher, 2014)에서 모두 있었다. 한편, 산업군에 있어서는 일반제조업에 비하여 농업(Radl and Himmelreicher, 2014)의 은퇴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 특성은 국가마다 처한 시장 및 노동

11) 60-64세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하여 대졸이상의 학력이 은퇴 시점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에는 유의한 영향 없고, 70-74세 집단의 경우 고졸 미만과 비교해 초대졸만이 유의하게 은퇴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따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구 특성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도 있다. 가구의 특성은 결혼을 둘러싼 맥락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 여부나 돌봄 의무를 제공해야 할 아동 및 고령 친족 등 은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들을 말한다(Ekerdt, 2010).

우선 부양가족은 부부가 공유하는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변수로, 취학자녀의 수와 미혼자녀 수(권문일, 1996), 미성년 자녀의 수(Denaeghel et al., 2011; 최승현, 2006) 등이 고려되었다. 연구 결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은퇴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경우 교육비 지출에 따른 재정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미혼자녀의 수의 경우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문일, 1996). 한편 손자녀의 수(Hospido and Zamarro, 2014)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Coile, 2004b; Jiménez-Martín et al., 1999) 등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은퇴 가능성은 높아진다(Denaeghel et al., 2011).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또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은퇴 가능성을 낮추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Denaeghel et al., 2011; Honoré and De Paula, 2014; Hospido and Zamarro, 2014; Syse et al., 2014;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클수록 배우자 사후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재정적 자원을 위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권문일, 1996). 권문일 (1996)의 연구에서는 저임금 집단의 경우 연령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임금 집단의 경우 연령차이가 클수록 은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부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저축을 공유하므로, 배우자의 은퇴로 인하여 가구의 여러 가지 합리적 상황은 변화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은퇴 여부는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연구문제 1>에 따른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남편(아내)의 은퇴는 아내(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장에서 논의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3-1>로 나타낼 수 있다. 자발적 은퇴는 기존의 노동공급 이론을 따른다. 부부의 여가취향이 보완적이며, 배우자의 은퇴 인센티브로 가구의 예산제약이 바뀔 때 배우자의 은퇴는 은퇴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자발적 은퇴의 경우 낙담효과와 추가노동자효과로 설명된다. 낙담효과가 우세할 경우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는 은퇴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추가노동자효과가 클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 따른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2. 남편(아내)의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의 자발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표 3-1〉 배우자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배경

		배우자의 은퇴 사유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배우자 은퇴 시 은퇴 결정	(+)	-부부의 보완적 여가 -은퇴 인센티브의 일출효과	-낙담 효과
	(-)	-부부의 은퇴 결정 독립적 -배우자와 여가 생활 비선호	-추가 노동자 효과

〈표 3-2〉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설명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표이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가부장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이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하다는 점, 은퇴 후에도 아내가 가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내는 남편에 비하여 더 큰 자원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3〉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은퇴가 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과 다를 것이다.

〈표 3-2〉 배우자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가설
본인의 은퇴가 배우자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	남성 > 여성	가부장형 의사결정
	남성 < 여성	여성우세형 의사결정

제 2절 자료와 측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4차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을 활용하고자 한다. KLoSA는 2006년부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년마다 실시된 종단 조사다. 은퇴와 노후 소득, 건강상태 등 고령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가 설계되었다. 특히, 노동과 관련하여 은퇴 여부와 생애 노동경험, 은퇴 시점, 은퇴 사유 등을 묻고 있어 부부의 은퇴를 다루는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2012년 4차 조사 당시 응답자는 51세 이상의 중·고령자 7,486명이다.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 부부는 모두 생애 노동참여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생애 노동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6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부부 모두 이미 은퇴한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은 1,038쌍(2,076명)이다. 2010년 이전 은퇴자의 은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3차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정보를 보완하였다.

2. 측정

(1) 은퇴

은퇴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나 이를 연구에서 구조화하기는 모호하다(Ekerdt, 2010). 은퇴란 일반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을 나타낸다(Radl and Himmelreicher, 2014). 관련 연구에서는 경력 중단, 노동 노력의 감소, 연금 수급 또는 자가 보고 은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를 측정하고 있다(Ekerdt, 2010). 각각의 측정 방법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은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수급자를 은퇴자로 정의하는 경우(Syse et al., 2014)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이탈했을 때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퇴를 측정하는 틀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적연금의 도입 역사가 짧아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나 수급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은퇴자의 수는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다(김지경, 2005).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현재 경제활동 참가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는 것이다(Hospido and Zamarro, 2014; Zhu, 2014). 유사하게 노동시간이 급격히 축소된 경험여부로 은퇴자를 구분하기도 한다(Guo, 2013; Gustman and Steinmeier, 2000). 이러한 상태는 그러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을 의미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은퇴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은퇴 측정방법은 자가보고 은퇴다(김원섭·우해봉, 2008; 김지경, 2005; 우혜경·조영태, 2013; 조동훈, 2014;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Coile, 2004a; Denaeghel et al., 2011; Honoré and De Paula, 2014; Smith, 2006).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조사들은 은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은퇴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측정

를 역시 경우에 따라 미은퇴자가 되거나 재은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Ekerdt, 2010).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간 혹은 조사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질문 구조를 가지고 있어(부가청, 2006) 보편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KLoSA에서 조사된 자가보고은퇴를 변수로 사용한다. KLoSA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 따라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을 은퇴자로 보았다. 일부 응답자의 경우 1~3차 조사 시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4차 조사에서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우 은퇴를 비가역적으로 본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은퇴한 것으로 보았다.

(2) 은퇴의 자발성과 비자발성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다(Dorn and Sousa-Poza, 2010). 은퇴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단일한 원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John C. Henretta et al., 1992),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은 이를 인지하는 개인에 따라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실제 1982년 연금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John C. Henretta et al. (1992)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문제를 은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 중 25.4%는 은퇴의 두 번째 원인으로 “은퇴를 원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은퇴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온전히 개인의 인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의 자발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은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은퇴 결정은 환경을 나타내는 선택권(choice)과 비용 및 이익으로 정의되는 동기(motivation)에서 나오기 때문이다(Szinovacz

and Davey, 2005). 직장폐쇄나 구조조정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된다(Dorn and Sousa-Poza, 2010).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은퇴는 비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 연구에서 자발성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발성에 대한 응답자의 자가보고를 사용하는 것이다(Dorn and Sousa-Poza, 2010; Shultz, Morton, and Weckerle, 1998; Szinovacz and Davey, 2005; Van Solinge and Henkens, 2007). 연구에 따라 자가보고 측정은 자발적으로 은퇴하였는지를 이분변수로 묻거나(Dorn and Sousa-Poza, 2010)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완전한 자발적 결정과 부분적인 자발적 결정을 묻기도 한다(Szinovacz and Davey, 2005). 이러한 자가보고 측정은 자발성이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Dorn and Sousa-Poza, 2010).

은퇴의 자발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퇴의 원인이나 실업상태 등으로 자발성을 판별하는 것이다(Johnson and Favreault, 2001; Radl and Himmelreicher, 2014; Smith, 2006). Radl and Himmelreicher (2014)은 은퇴자의 주요 은퇴 원인을 바탕으로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를 구분하였다. 비자발적 은퇴는 고용 제약과 건강관련 은퇴를 포함하였으며, 자발적 은퇴는 비자발적 은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은퇴를 포함하였다. 자발적 은퇴자와 비자발적 은퇴자의 식품비 지출을 비교한 Smith (2006)는 비자발적 은퇴의 경우 은퇴 전 실업이나 질병 혹은 장애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은퇴 전 고용 중인 이들을 자발적 은퇴자로, 은퇴 전 미 취업 중인 이들을 비자발적 은퇴자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분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임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서 자발성의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Dorn and Sousa-Poza, 2010). 특히 건강문제나 직장에 대한 불만 등 은퇴 결정을 유

도하는 부정적인 고려사항인 퇴출요인은 은퇴의 비자발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hultz et al., 1998).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KIoSA는 은퇴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직접 질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의 이유를 묻고 있으며, 응답자는 12가지 답변¹²⁾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이나 해고 등을 비자발적 은퇴로 본 Radl and Himmelreicher (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득이 충분해서나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일이 하기 싫어서 등의 응답(①~⑤)을 자발적 은퇴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실업 등의 응답을 비자발적 은퇴(⑥~⑪)로 설정하였다. 기타를 응답한 경우 이유를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답 내용과 2순위 은퇴원인을 확인한 뒤 자발성을 판단하였다.

(3)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은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요인과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부부공동요인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서 은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건강상태, 교육수준, 연령, 직업적 특성 등이 개인요인으로 포함되었으며, 미성년 자녀의 수, 가구의 소득, 부부의 연령차이 등을 부부공동변수로 보았다. 통제변수의 측정방법과 변수속성은 <표 3-3>에 기술하였다.

12) 은퇴자는 다음 12가지 응답지 중 은퇴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다. ① 은퇴를 해도 수입이 충분해서 ②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해서 ③일하기 싫어져서 ④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⑤사회봉사/취미활동을 하려고 ⑥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⑦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⑧ 다른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 ⑨가사 및 육아 때문에 ⑩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⑪ 정년 퇴직으로 ⑫기타

〈표 3-3〉 변수 속성 및 측정수준

항목	변수명	조작정 정의	변수 속성	측정 수준
은퇴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함	은퇴: 1, 미은퇴: 0	비연속
	자발적 은퇴	은퇴의 주요 원인을 소득이 충분해서나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일이 하기 싫어서로 응답한 경우 자발적 은퇴로 정의함	자발적 은퇴: 1, 미은퇴 및 비자발적 은퇴: 0	비연속
	비자발적 은퇴	은퇴의 주요 원인을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실업 등으로 응답한 경우 비자발적 은퇴로 정의함	비자발적 은퇴: 1, 미은퇴 및 자발적 은퇴: 0	비연속
개인 요인	연령	2012년 현재 연령	세(단위)	연속
	교육수준	2012년 현재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기준),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비연속
	건강상태	자가보고 건강상태	좋음(기준), 보통, 나쁨	비연속
	고용형태	은퇴자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며, 노동자의 경우 2012년 현재 고용형태를 나타냄	임금근로자(기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연속
	직종 대분류	은퇴자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직종을 나타내며, 노동자의 경우 2012년 현재 직종 나타냄	관리·사무직(기준) 서비스·판매직, 농업·기능·기술직, 단순노무	비연속
부부 공동 요인	가구소득	응답자의 지난 해 총 가구소득	천 만원(단위)	연속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남편의 연령-아내의 연령	세(단위)	연속
	부양 부담	고등학생 이하인 자녀의 수	명(단위)	연속

제 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남편과 아내의 은퇴 여부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가 된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주요특성을 각 변수별 기술통계로 살펴본 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퇴 여부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분변수이므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분석이 아닌,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모델 1과 모델 3과 같다.

$$(모델\ 1)\ Y_h = Y_w\beta_{h11} + X_h\beta_{h12} + X_f\beta_{h13} + \epsilon_h$$

$$(모델\ 3)\ Y_w = Y_h\beta_{w11} + X_w\beta_{w12} + X_f\beta_{w13} + \epsilon_w$$

Y_h : 남편의 은퇴 여부	X_h :남편의 개인 요인
Y_w : 아내의 은퇴 여부	X_w :아내의 개인 요인
	X_f :가구요인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부부의 은퇴가 서로에게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남편과 아내의 은퇴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서 분명히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Zhu, 2014). 즉, 남편과 아내의 은퇴는 연립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본 프로빗 분석은 오차항이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모델 1에서 설명변수인 아내의 은퇴 Y_w 는 ϵ_h 와 통계적으로 독립이고, 모델 3에서 남편의 은퇴 Y_h 가 ϵ_w 와 독립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채 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불일치 추정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Gujarati, Porter,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서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도구변수추정법과 이변량프로빗(bivariate probit)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배우자의 은퇴에 본인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의 전체 외생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은퇴를 추정하고자 한다(임진섭, 2009).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오차항 ϵ_h 와 ϵ_w 가 ρ 의 상관계수로 다변량 표준정규분포(multivariate standard-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하는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김진원, 2015).

$$(모델\ 2) \begin{cases} Y_w = X_w\beta_{w21} + X_f\beta_{w22} + X_h\beta_{w23} + \epsilon_{w2} \\ Y_h = Y_w\beta_{h21} + X_h\beta_{h22} + X_f\beta_{h23} + \epsilon_{h2} \end{cases}$$

$$(모델\ 4) \begin{cases} Y_h = X_h\beta_{h31} + X_f\beta_{h32} + X_w\beta_{h33} + \epsilon_{h3} \\ Y_w = Y_h\beta_{w31} + X_w\beta_{w32} + X_f\beta_{w33} + \epsilon_{w2} \end{cases}$$

이 때 남편과 아내 은퇴의 내생성 여부는 상관계수 ρ 값으로부터 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ρ 는 두 추정식에서 관측되어지지 않는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2에서 $\rho=0$ 일 경우 Y_w 와 ϵ_{h2} 는 독립적으로 외생변수가 된다. 반대로 $\rho \neq 0$ 일 경우 Y_w 와 ϵ_{h2} 는 서로 종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Y_w 은 내생변수가 됨을 의미한다(박성복, 2011).

배우자 은퇴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따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1~4와 같이 프로빗 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한다.

$$(모델\ 5) Y_h = Y_{w1}\beta_{h41} + Y_{w2}\beta_{h42} + X_h\beta_{h43} + X_f\beta_{h44} + \epsilon_{h4}$$

$$(모델\ 7) Y_w = Y_{h1}\beta_{w41} + Y_{h2}\beta_{w42} + X_w\beta_{w43} + X_f\beta_{w44} + \epsilon_{w4}$$

$$(모델\ 6) \begin{cases} Y_{w1} = & X_w\beta_{w51} + X_f\beta_{w52} + X_h\beta_{w53} + \epsilon_{w5} \\ Y_{w2} = & X_w\beta_{w61} + X_f\beta_{w62} + X_h\beta_{w63} + \epsilon_{w6} \\ Y_h = Y_{w1}\beta_{h51} + Y_{w2}\beta_{h52} + X_h\beta_{h53} + X_f\beta_{h54} & + \epsilon_{h5} \end{cases}$$

$$(모델\ 8) \begin{cases} Y_{h1} = & X_h\beta_{h71} + X_f\beta_{h72} + X_w\beta_{h73} + \epsilon_{h7} \\ Y_{h2} = & X_h\beta_{h81} + X_f\beta_{h82} + X_w\beta_{h83} + \epsilon_{h8} \\ Y_w = Y_{h1}\beta_{w71} + Y_{h2}\beta_{w72} + X_w\beta_{w73} + X_f\beta_{w84} & + \epsilon_{w8} \end{cases}$$

Y_{h1} : 남편의 자발적 은퇴

Y_{w1} : 아내의 자발적 은퇴

Y_{h2} :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Y_{w2} :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위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AS 9.4버전의 QLIM 프로시저를 사용하였다. QLIM 프로시저는 이분변수나 일정 구간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인 종속변수의 일변량(univariate)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시행 시 연령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연령은 노동시장의 특성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라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정년이 50대 후반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19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0세라는 점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집단의 은퇴양상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집단의 기술통계 결과를 소개하고, 앞서 소개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기술통계

1. 연구대상 집단의 주요 특성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의 4차 조사 응답자 중 75세 이하의 중·고령자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 집단으로 삼고 있다.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술 통계 결과는 <표 4-1>에 수록되었다.

우선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은 여성(38.3%)에 비하여 남성(40.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¹³⁾. 배우자가 있을 경우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손정연·한경혜, 2012; 신혜숙, 2001), 배우자가 있는 이들로 한정 지은 본 연구 대상 집단이 동일한 연령의 전 인구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농업·기능·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

13)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통계』, p.35, [그림1-26]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남성	28.6	28.3	25.3
여성	24.2	17.0	14.9

았으며, 여성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의 지위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절반 이상이 임금노동자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남성은 3.2%로 작은 반면, 여성은 24.7%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수준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육수준(중졸 이하)을 나타낸 비율은 남성이 43.9%, 여성의 60.6%로 여성의 비율이 16.7%p 더 높았다.

〈표 4-1〉 연구대상 집단의 기술통계

더미변수		남편 (N= 1,038)		아내 (N= 1,038)	
		N	%	N	%
교육수준	낮음 (기준)	456	43.9	629	60.6
	중간	409	39.4	337	32.5
	높음	173	16.7	72	6.9
건강상태	좋음 (기준)	425	40.9	397	38.3
	보통	416	40.1	455	43.8
	나쁨	197	19.0	186	17.9
직업	관리·사무직 (기준)	203	19.6	127	12.2
	단순노무	240	23.1	296	28.5
	판매·서비스	147	14.2	391	37.7
	농업·기능·기술직	448	43.2	224	21.6
종사상의 지위	임금노동자 (기준)	497	47.9	544	52.4
	자영업자	508	48.9	238	22.9
	무급가족종사자	33	3.2	256	24.7
연속변수		N	Mean	SD	
남편 변수	연령	1038	62.2	6.5	
아내 변수	연령	1038	58.7	6.0	
가족 변수	가구소득(천만원)	1038	3.4	2.5	
	미성년자녀수	1038	0.1	0.3	
	부부의 연령차	1038	3.5	3.1	

연구대상 집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더 큰 반면, 남성은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더 크다는 점이다. 50대(51~59세) 남성의 수는 408명(39.3%)인 반면, 50대 여성의 수는 612명(59.0%)으로 여성의 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남편의 연령은 아내에 비하여 평균 3.5세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그룹이 연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더 높았으며, 건강상태 역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 60세 미만 그룹에 비하여 60세 이상 그룹에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사무직의 비율은 낮았다.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60세 이상 그룹에 비하여 60세 미만 그룹에서 더 높았고 가구의 평균소득도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그룹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가진 사례가 관측되었으나, 60세 이상 여성 그룹에서는 미성년자녀를 가진 사례가 없었다(〈부표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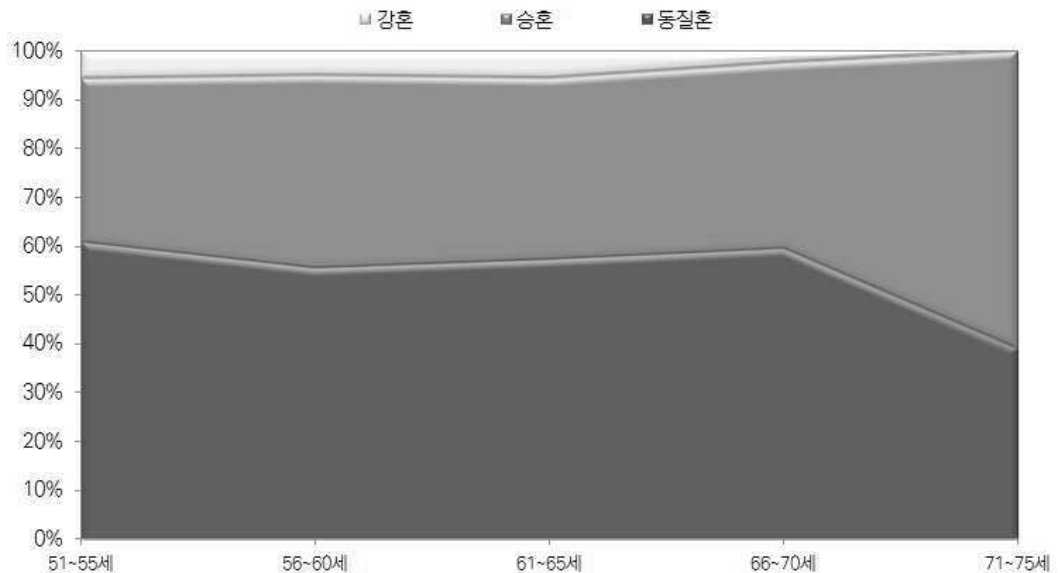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부부의 은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인구사회적 주요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association)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는 교육수준이나 종사상의 지위, 직업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동질혼, homogamy)을 나타냈다. 우선, 절반 이상(57.7%)의 부부는 학력이 동일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교육수준(승혼 昇婚, Hypergamy)을 나타냈다. 전체 부부의 37.6%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이었으며 4.8%만이 반대의 경우(강혼 降婚, hypogamy)였다(〈표4-2〉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세대(cohort)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4-1]의 통혼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질혼과 강혼의 비율은 낮아지고, 승혼의 비율이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집단의 경우 부부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가 60.1%를 차지한 반면, 60세 이상 집단은 5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승혼도 아내의 나이 60세 미만인 집단은 34.6%인 반면,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41.5%를 나타내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강혼은 60세 미만에서 5.2%로 60세 이상 집단(4.2%)보다 다소 높았다([그림 4-2] 참고). 연령집단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여성의 학력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박현준·김경근 2012).

〈표 4-2〉 부부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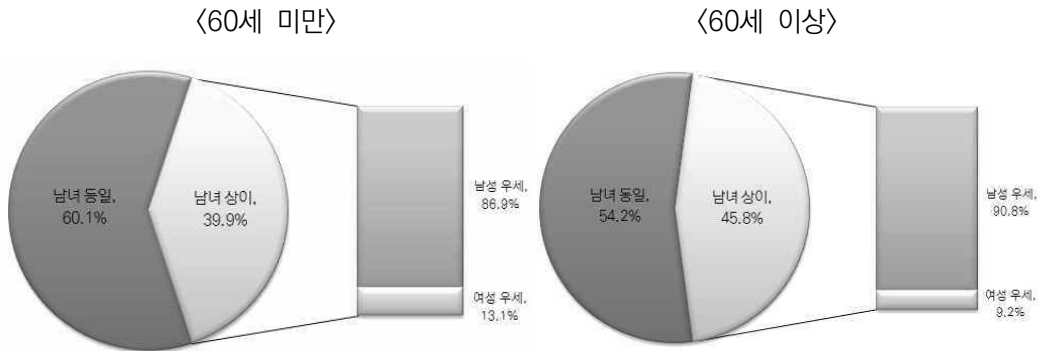
N=1,038쌍		아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N	%	N	%	N	%	N	%
남편	초졸	230	22.2	19	1.8	3	0.3	0	0.0
	중졸	102	9.8	83	8.0	19	1.8	0	0.0
	고졸	62	6.0	115	11.1	223	21.5	9	0.9
	대졸	4	0.4	14	1.4	92	8.9	63	6.1

[그림 4-1] 부부의 교육수준 통혼표



주: 1)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부부 1,038쌍을 대상으로 함.
2) 아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그림 4-2]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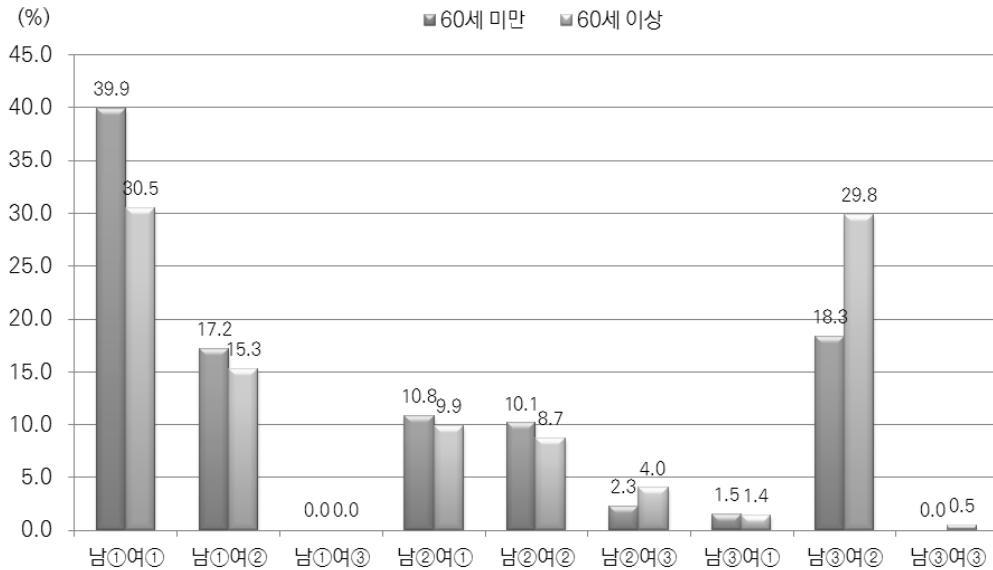
주: 아내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집단을 구분함. 60세 미만은 612쌍, 60세 이상은 426쌍임.

부부가 같은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45.7%)도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부부모두 임금노동자인 경우가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편은 자영업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전체 부부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편이 자영업자일 때 아내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수치다(<표 4-3> 참고). 이러한 특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진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모두 임금종사자인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남편은 자영업,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은 60세 미만 그룹 18.3%에서 60세 이상 그룹 29.8%로 1.6배가량 뛰어오른다([그림 4-3] 참고).

<표 4-3> 부부의 종사상의 지위

N=1,038쌍		아내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N	%	N	%	N	%
남편	임금노동자	374	36.0	108	10.4	15	1.5
	자영업자	170	16.4	99	9.5	239	23.0
	무급가족종사자	0	0.0	31	3.0	2	0.2

[그림 4-3]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의 종사상의 지위



주: 1) 아내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집단을 구분함. 60세 미만은 612쌍, 60세 이상은 426쌍임.
2) ① 임금노동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역시 34.4%의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고). 종사상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부부의 직업이 같은 비율이 더 높아진다. 아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미만 집단의 경우 부부가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7.6%인 반면,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그 비율이 43.9%로 높아진다. 특히 부부모두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는 (아내 나이) 60세 미만 집단 7.8%에서, 60세 이상 집단 13.2%로 1.7배가량 늘어난다. 부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 역시 60세 미만 6.4%에서 60세 이상 19.7%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그림 4-4〉 참고). 이러한 경향은 고령자가 종사 가능한 직업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주로하고 있는 일은 농림어업이 38.3%로 높다. 또한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 둔 후 은퇴 전 새로운 일자리를 나타내는 “가교일자리”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강은나, 2015), 이러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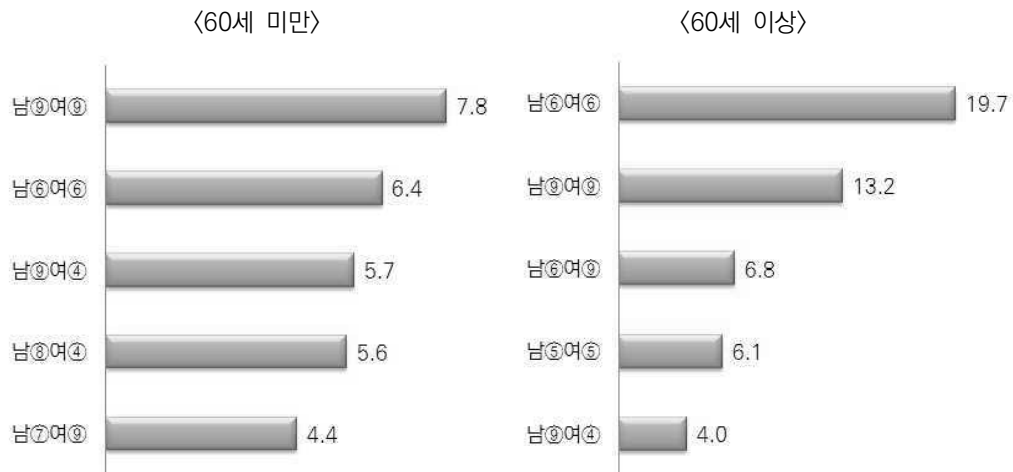
인하여 고령 집단에서 부부모두 농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직업적으로 동질한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부부의 직업

N=1,038쌍			아내								
			관리·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업·기능·기술직			단순 노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남편	관리·사무직	①	0.3	0.9	1.3	1.5	1.5	0.2	0.5	0.1	0.7
		②	0.1	1.7	0.5	0.9	1.5	0.2	0.2	0.0	1.1
		③	0.1	0.7	0.7	1.5	1.5	0.0	0.2	0.1	2.0
	판매·서비스	④	0.0	0.2	0.3	3.1	0.9	0.0	0.3	0.2	1.3
		⑤	0.0	0.3	0.4	0.9	4.8	0.1	0.4	0.1	1.1
	농업·기능· 기술직	⑥	0.1	0.3	0.0	1.1	0.8	11.9	0.2	0.1	4.8
		⑦	0.1	0.8	0.8	2.9	1.4	0.2	1.4	0.3	4.0
		⑧	0.1	0.6	0.7	3.9	1.9	0.2	0.9	0.5	3.7
	단순노무	⑨	0.1	0.7	0.8	5.0	3.0	0.7	2.1	0.8	10.0

주: ① 관리자, ② (준)전문가, ③ 사무직, ④ 서비스근로자, ⑤ 판매근로자, ⑥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그림 4-4]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 직업(상위 5가지 경우, %)



주: 1) 아내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집단을 구분함. 60세 미만은 612쌍, 60세 이상은 426쌍임.
2) ① 관리자, ② (준)전문가, ③ 사무직, ④ 서비스근로자, ⑤ 판매근로자, ⑥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한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부표 3〉 참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연령과 아내의 연령이 0.88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연령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지 않고, 부부의 연령차를 대리변수로 보았다. 이 외의 모든 변수는 절대값 0.5 이하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 은퇴 관련 주요 특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핵심 설명 변수인 은퇴 관련 특성을 은퇴 여부와 은퇴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 중 은퇴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은퇴율은 남편(23.7%)과 아내(25.5%)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율이 높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남녀의 은퇴율은 상이하다. 여성의 경우 50대 은퇴율이 18.8%인 반면, 남성은 8.6%로 2.2배 차이가 난다. 연령별 은퇴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세 미만 연령의 은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여성은 50대 은퇴율도 대부분 10% 이상으로 나타난다(〈그림 4-5〉참고). 은퇴자의 은퇴 자발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은퇴한 비율은 남성(15.0%)에 비하여 여성(27.2%)이 더 높았으며, 60세 이상 연령집단에 비하여 60세 미만 연령집단이 더 높았다.

〈표 4-5〉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1): 전 연령

N=1,038쌍	전연령			
	남편		아내	
	N	%	N	%
미은퇴	792	76.3	773	74.5
은퇴	246	23.7 (100.0)	265	25.5 (100.0)
자발적 은퇴	37	3.6 (15.0)	72	6.9 (27.2)
비자발적 은퇴	209	20.1 (85.0)	193	18.6 (72.8)

주: 괄호 안 수치는 은퇴자 중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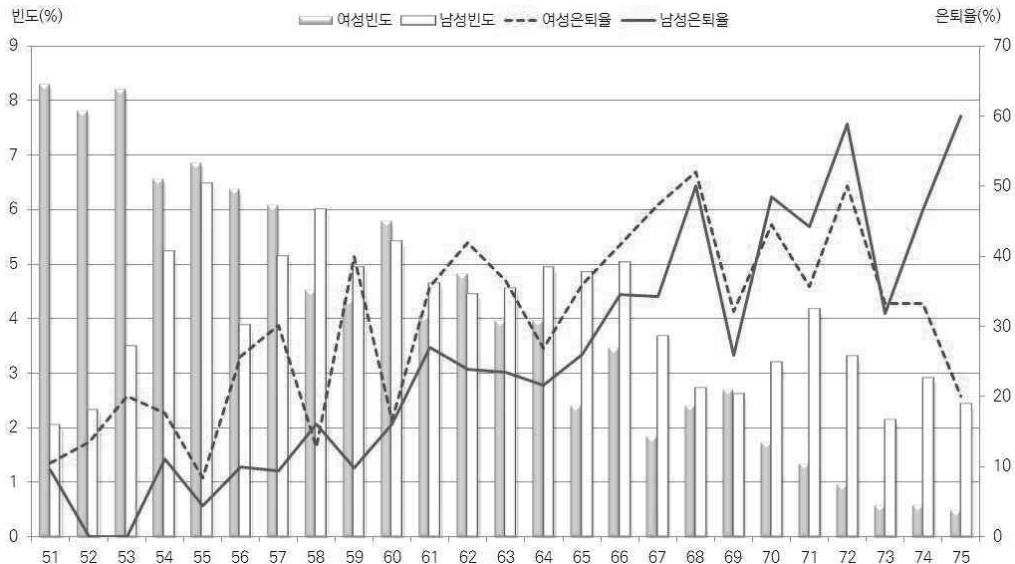
〈표 4-6〉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2): 연령그룹별

남성 연령별 그룹								
	남편 60세 미만 (N=408)				남편 60세 이상 (N=630)			
	남편		아내		남편		아내	
	N	%	N	%	N	%	N	%
미은퇴	373	91.4	340	83.3	419	66.5	433	68.7
은퇴	35	8.6 (100.0)	68	16.7 (100.0)	211	33.5 (100.0)	197	31.3 (100.0)
자발적 은퇴	7	1.7 (20.0)	22	5.4 (32.4)	30	4.8 (14.2)	50	7.9 (25.4)
비자발적은퇴	28	6.9 (80.0)	46	11.3 (67.6)	181	28.7 (85.8)	147	23.3 (74.6)

여성 연령별 그룹								
	아내 60세 미만 (N=612)				아내 60세 이상 (N=426)			
	남편		아내		남편		아내	
	N	%	N	%	N	%	N	%
미은퇴	527	86.1	497	81.2	265	62.2	276	64.8
은퇴	85	13.9 (100.0)	115	18.8 (100.0)	161	37.8 (100.0)	150	35.2 (100.0)
자발적 은퇴	14	2.3 (16.5)	36	5.9 (31.3)	23	5.4 (14.3)	36	8.5 (24.0)
비자발적은퇴	71	11.6 (83.5)	79	12.9 (68.7)	138	32.4 (85.7)	114	26.8 (76.0)

주: 괄호 안 수치는 은퇴자 중 비율을 나타냄

[그림 4-5] 연령별 남녀 은퇴율



주: 1)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부부 1,038쌍을 대상으로 함

2)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분포가 다르므로, 해당연령대의 대상자 수 대비 은퇴자수의 비율인 은퇴율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한편 연구대상 부부의 은퇴 양상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 커플 중 부부 모두 노동시장에서 활동 중인 경우가 6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부가 모두 은퇴한 비율은 전체의 9.4%였으며, 남편은 은퇴하였으나 아내는 노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14.3%, 반대로 아내는 은퇴하였으나 남편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우가 16.1%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모두 은퇴한 비율은 높아진다. 아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미만 집단의 경우 부부 모두 은퇴한 경우는 3.3%에 불과하나,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18.3%로 높아진다. 부부모두 미은퇴한 비율은 60세 미만에서 70.6%로 대부분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5.3%로 낮아진다.

〈표 4-7〉 연구 대상자의 은퇴 관련 기초통계(3): 부부의 은퇴

		아내		Total
		미은퇴	은퇴	
남편	미은퇴	625 (60.2)	167 (16.1)	792 (76.3)
	은퇴	148 (14.3)	98 (9.4)	246 (23.7)
Total		773 (74.5)	265 (25.5)	1038 (100.0)

주: 괄호 안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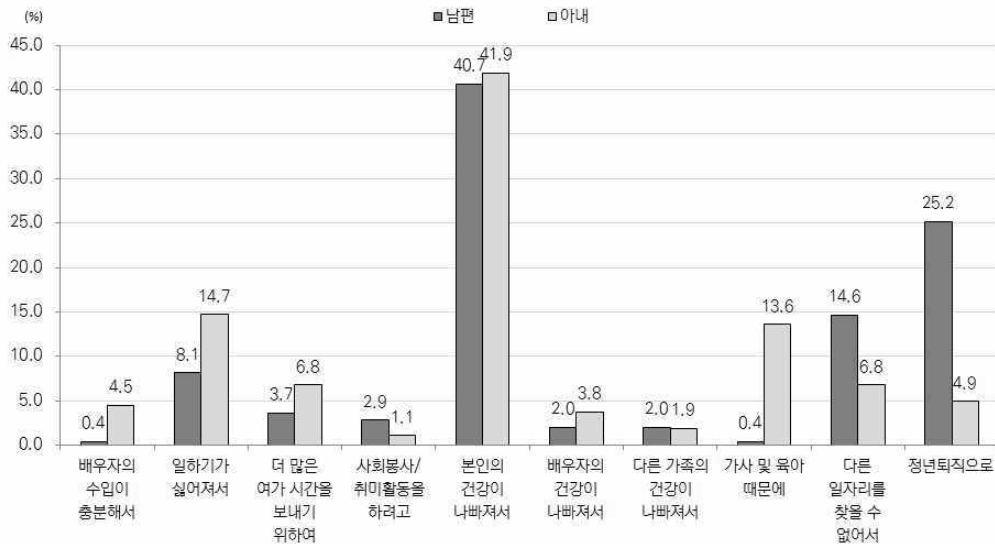
[그림 4-6] 연령별 부부의 은퇴



주: 아내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집단을 구분함. 60세 미만은 612쌍, 60세 이상은 426쌍임.

연구 대상자의 은퇴 원인으로서는 남녀 모두 1순위로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를 꼽았다. 이는 주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인 은퇴보다는 건강문제와 같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은퇴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은퇴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은퇴한 비율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일하기 싫어져서 은퇴를 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은퇴했다는 비율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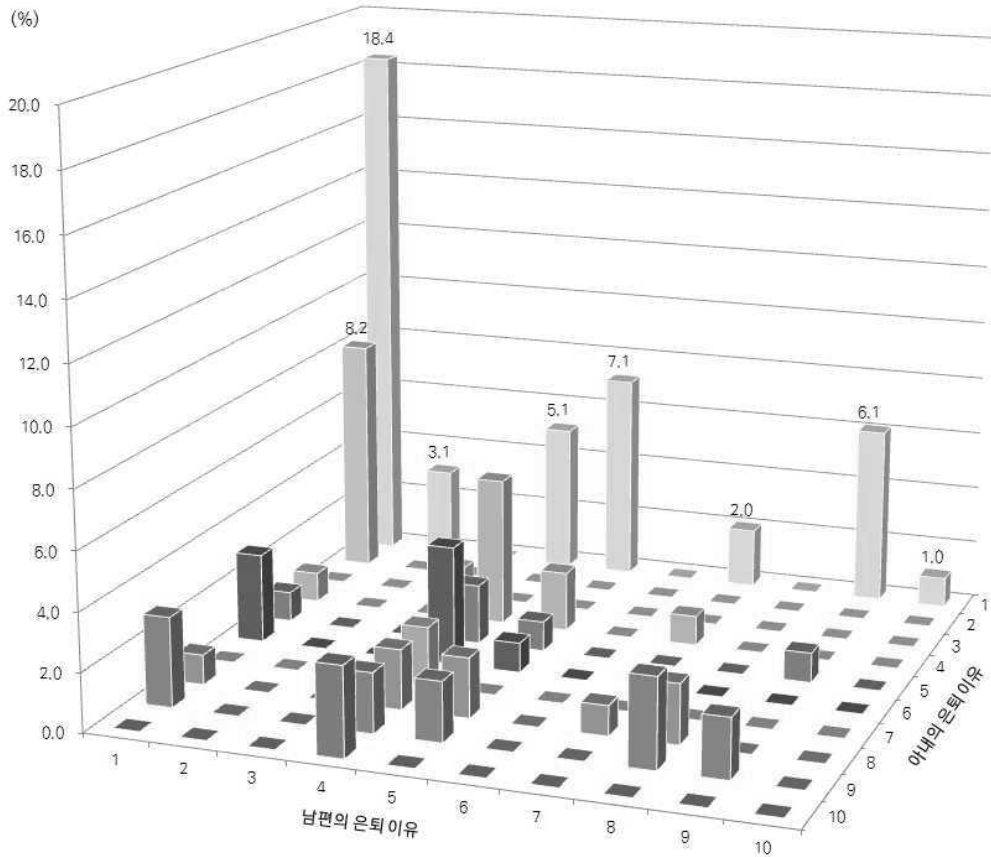
[그림 4-7] 연구대상자의 은퇴원인



주: 남성은퇴자 246명과 여성은퇴자 265명의 응답결과임.

부부가 모두 은퇴한 집단(N=98)의 은퇴 원인을 살펴보면, 부부 모두 자신의 건강문제로 은퇴한 경우가 18.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남편은 자신의 건강문제로, 아내는 남편의 건강문제로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이들도 8.2%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아내는 자신의 건강문제로 은퇴하고, 남편은 아내의 건강문제로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3.1%에 이르러 부부가 자신 혹은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한 경우가 29.7%를 차지하였다.

[그림 4-8] 부부의 은퇴원인



주: 1) 부부모두 은퇴한 98쌍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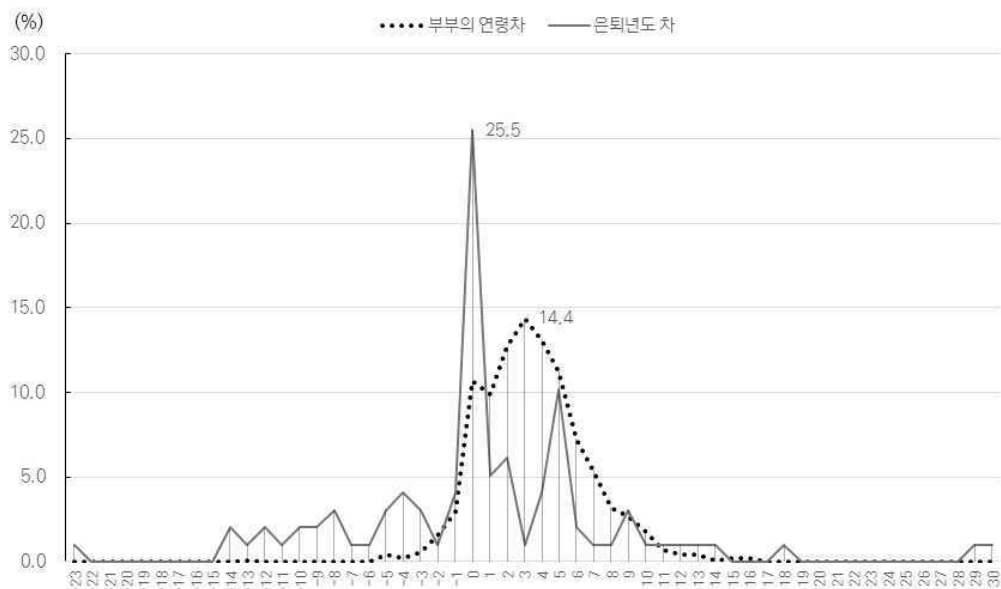
2) ①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②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③ 다른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 ④ 정년퇴직으로, 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⑥ 가사 및 육아 때문에, ⑦ 사회봉사/취미활동을 하려고, ⑧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⑨ 일하기가 싫어져서, ⑩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해서

특히 아내는 남편의 건강문제 발생 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은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아플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돌봄 부담이 더 크며(이인정·한인영, 2010), 여성에게 돌봄의 역할을, 남성에게는 생산적인 사회활동의 역할을 기대하므로,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은 여성이 맡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최경숙·은영, 2000)와 일치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문제 이외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부부모두 은퇴한 비율이 33.7%였다. 남편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아내는 자발적인 이유로 은퇴한 경우가 17.3%, 남편은 자발적인 이유로, 아내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은퇴한 경우가 8.2%, 부부 모두 자발적인 이유로 은퇴한 경우는 11.2%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 모두 은퇴한 커플의 은퇴년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부부가 같은 년도에 은퇴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9) 참고). 이는 부부의 평균 연령차가 3.5세인 점과 대조할 때, 부부의 연령 차이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같은 년도에 은퇴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해외 주요 선행연구에서 관측된 동반은퇴(Joint retirement)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9] 부부의 연령차와 은퇴년도차



주: 부부의 연령차는 전체 연구대상자(N=1038)중 비율이며, 은퇴년도차이는 부부가 모두 은퇴한 부부(N=98) 중 비율임. 부부가 모두 은퇴한 이들(N=98)의 평균 은퇴년도 차이는 4.2세임.

제 2절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확인하고, 배우자의 은퇴 자발성 여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별 부부은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1.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분석과 이변량프로빗을 실시하였다. 프로빗 분석은 배우자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부부가 서로의 은퇴에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모델 1, 3). 이는 본인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역인과 관계를 통제하지 못하여 과대 식별(overidentifying)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변량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모델 2, 4).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먼저 아내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보고 남편의 은퇴를 예측한 모델 1에서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인구·사회적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은퇴와 남편의 은퇴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통제한 모델 2에서도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두 방정식의 잔차의 상관계수인 ρ 가 0이라는 귀무가설 역시 기각되어 내생성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 추정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12)(〈표 4-8〉 참고).

그러나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모델 3에서 남편의 은퇴는 아내

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고려한 모델 4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모델 4의 상관계수 ρ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은퇴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표 4-9〉 참고).

한편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관리·사무직에 비하여 단순노무, 농업·기능·기술직의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은퇴 가능성이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무급종사자 역시 임금노동자에 비하여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주요 가구 소득과 미성년 자녀수 등의 가구 변수가 은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이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가 유사하였다. 배우자의 연령, 나쁜 건강상태는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배우자가 단순노무, 농업·기능·기술직일 경우 관리·사무직에 비하여 은퇴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종사상의 지위의 경우 남녀가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남편은 아내가 임금노동자일 때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일 때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아내는 남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일 경우에도 은퇴 가능성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자영업인 경우 아내가 무급 가족종사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기술통계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표 4-8〉 남편의 은퇴 결정 영향 요인 분석

		모델 1. 프로빗 분석		모델 2. 연립 이변량 프로빗 분석			
		남편의 은퇴(은퇴=1)		남편의 은퇴(은퇴=1)		아내의 은퇴(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남 편 변 수	아내의 은퇴	0.214 [*]	0.109	1.409 ^{***}	0.157		
	연령	0.074 ^{***}	0.010	0.044 ^{***}	0.010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077	0.117	-0.132	0.108	0.079	0.120
	높음	0.247	0.174	0.057	0.162	0.284	0.19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846 ^{***}	0.135	0.705 ^{***}	0.129	-0.059	0.140
	보통	0.266 [*]	0.114	0.205 [†]	0.105	-0.010	0.111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434 ^{**}	0.167	-0.373 [*]	0.156	0.008	0.159
	판매·서비스	-0.111	0.182	-0.028	0.171	-0.051	0.188
	농업·기능·기술직	-0.540 ^{**}	0.157	-0.400 ^{**}	0.147	-0.038	0.147
아 내 변 수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539 ^{***}	0.117	-0.336 ^{**}	0.111	-0.105	0.113
	무급가족종사자	-0.422	0.286	-0.045	0.271	-1.245 ^{**}	0.349
	연령					0.054 ^{***}	0.009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11	0.129
	높음					0.179	0.232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382 ^{**}	0.134
	보통					0.064	0.107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374 [*]	0.160
가 족 변 수	판매·서비스					-0.289 [*]	0.147
	농업·기능·기술직					-0.455 ^{**}	0.176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039	0.115
	무급가족종사자					-1.024 ^{***}	0.145
	가구소득(천만원)	-0.032	0.024	-0.010	0.023	-0.082 ^{**}	0.026
	미성년자녀수	-0.291	0.244	-0.210	0.233	-0.513 [*]	0.223
	부부의 연령차	-0.011	0.016	0.011	0.015	-0.004	0.015
	Intercept	-5.024 ^{***}	0.639	-3.648 ^{***}	0.635	-3.047 ^{***}	-0.777
	ρ					-0.774 ^{***}	0.080
	N	1038		1038			
	Log-likelihood	-447.66		-927.33			

주: †<0.1, *<0.05, **<0.01, ***<0.001

〈표 4-9〉 아내의 은퇴 결정 영향 요인 분석

		모델 3. 프로빗 분석		모델 4. 연립 이변량 프로빗 분석			
		아내의 은퇴(은퇴=1)		아내의 은퇴(은퇴=1)		남편의 은퇴(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아 내 변 수	남편의 은퇴	0.083	0.113	0.292	0.401		
	연령	0.046***	0.010	0.040*	0.014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009	0.117	-0.016	0.118	0.008	0.155
	높음	0.416*	0.211	0.391 ⁺	0.216	0.119	0.270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404**	0.138	0.385**	0.143	0.089	0.164
	보통	0.028	0.107	0.011	0.111	0.182	0.127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421*	0.173	-0.417*	0.173	-0.017	0.194
	판매·서비스	-0.283 ⁺	0.159	-0.274	0.160	-0.123	0.182
	농업·기능·기술직	-0.466*	0.191	-0.454*	0.192	-0.079	0.216
남 편 변 수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341**	0.119	-0.357*	0.122	0.330*	0.132
	무급가족종사자	-1.095***	0.146	-1.031***	0.189	-1.094***	0.182
	연령					0.088**	0.011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18	0.133
	높음					0.200	0.21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761***	0.152
	보통					0.144	0.126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388*	0.177
가 족 변 수	판매·서비스					0.008	0.195
	농업·기능·기술직					-0.401*	0.166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244 ⁺	0.127
가 족 변 수	무급가족종사자					-0.725*	0.308
	가구소득(천만원)	-0.068**	0.025	-0.066*	0.026	-0.039	0.025
	미성년자녀수	-0.495*	0.221	-0.486*	0.221	-0.296	0.251
	부부의 연령차	-0.010	0.015	-0.014	0.017	-0.020	0.017
	Intercept	-2.627***	0.639	-2.345**	0.829	-5.831***	0.737
ρ						-0.132	0.244
N		1038		1038			
Log-likelihood		-502.58		-914.80			

주: †<0.1, *<0.05, **<0.01, ***<0.001

2. 배우자의 은퇴 자발성이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대다수의 고령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은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를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로 나누어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를 외생변수로 본 프로빗 분석(모델 5, 7)과 내생성을 고려한 다변량프로빗 분석(모델 6, 8)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편의 은퇴에 아내의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모델 6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영향요인이나, 자발적 은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아내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있다. 아내의 자발적 은퇴에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자발적 은퇴에는 종사상의 지위 이외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특징(은퇴 가능성)이 아내의 자발적인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프로빗 분석 결과에서 관측된 아내의 자발적 은퇴의 영향력은 역인과 관계에 의한 과다식별의 결과일 수 있다. 반대로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주요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4-10〉 참고).

한편 모델 3~4에서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은퇴 자발성을 분류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인 은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남편의 은퇴를 외생변수로 본 모델 7에서는 남편의 비자발적

인 은퇴가 아내의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예측 요인을 나타냈으나, 아내의 주요 특성이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모델 8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남편의 은퇴예측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아내의 주요 특성이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고 외생변수로 확인할 경우 그 영향력이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4-11〉 참고).

한편, 각 방정식에서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반면, 비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은 유의하게 늘어났다. 남성 역시 나쁜 건강상태는 비자발적 은퇴의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변수가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주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아내의 자발적인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교육수준은 낮음에 비하여 중간 혹은 높을 경우 아내의 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남편의 직업이 관리·사무직인 경우에 비하여 판매·서비스직, 농업·기능·기술직일 경우 자발적 은퇴의 가능성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남편의 직업이 관리·사무직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의 자발적인 은퇴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로, 아내의 자발적인 은퇴가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으로 은퇴한 여성 중 17% 가량이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해서” 은퇴하였다는 기술통계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나타낸다.

〈표 4-10〉 아내 은퇴의 자발성이 남편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5. 프로빗 분석		모델 6. 연립 다변량 프로빗 분석					
		남편의 은퇴 (은퇴=1)		남편의 은퇴 (은퇴=1)		아내의 자발적 은퇴 (은퇴=1)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B	SD
남 편 변 수	아내의 자발적은퇴	0.308 [†]	0.186	0.245	0.361				
	아내의 비자발적은퇴	0.181	0.121	1.385***	0.157				
	연령	0.074***	0.010	0.051***	0.010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084	0.117	-0.079	0.112	0.465**	0.179	-0.041	0.129
	높음	0.239	0.174	0.146	0.165	0.568*	0.268	0.073	0.20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851***	0.135	0.677***	0.133	-0.315	0.230	0.085	0.145
	보통	0.266*	0.114	0.204 [†]	0.107	0.000	0.157	0.035	0.116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436**	0.168	-0.409**	0.157	0.165	0.208	-0.104	0.171
	판매·서비스	-0.107	0.182	-0.115	0.172	-0.433 [†]	0.262	0.141	0.203
	농업·기능·기술직	-0.535**	0.157	-0.510**	0.148	-0.411*	0.201	0.158	0.160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546***	0.118	-0.341*	0.112	0.437**	0.161	-0.345**	0.123
	무급가족종사자	-0.423	0.286	-0.126	0.274	-1.569	1.555	-1.184*	0.387
아 내 변 수	연령					0.039**	0.014	0.041***	0.010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22	0.187	-0.132	0.139
	높음					0.151	0.311	-0.032	0.253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430 [†]	0.237	0.517**	0.139
	보통					-0.186	0.160	0.092	0.117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276	0.228	-0.426*	0.173
	판매·서비스					-0.216	0.209	-0.235	0.157
	농업·기능·기술직					-0.488 [†]	0.283	-0.315 [†]	0.183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004	0.170	-0.119	0.125
	무급가족종사자					-0.749**	0.251	-0.928***	0.151
가 족 변 수	가구소득(천만원)	-0.033	0.024	-0.014	0.023	-0.023	0.035	-0.094*	0.029
	미성년자녀수	-0.290	0.244	-0.281	0.242	-0.482	0.339	-0.386	0.246
	부부의 연령차	-0.011	0.016	0.006	0.015	-0.009	0.023	-0.004	0.015
	Intercept	-5.018***	0.639	-3.913***	0.622	-3.452**	0.934	-2.564**	0.671
ρ						0.126	0.190	-0.748***	0.079
N		1038		1038					
Log-likelihood		-447.46		-1057					

주: †<0.1, *<0.05, **<0.01, ***<0.001

〈표 4-11〉 남편 은퇴의 자발성이 아내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7. 프로빗 분석		모델 8. 연립 다변량 프로빗 분석					
		아내의 은퇴 (은퇴=1)		아내의 은퇴 (은퇴=1)		남편의 자발적 은퇴 (은퇴=1)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B	SD
아 내 변 수	남편의 자발적은퇴	0.019	0.120	1.190	1.415				
	남편의 비자발적은퇴	0.434 [†]	0.233	0.031	0.936				
	연령	0.046***	0.010	0.041*	0.020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024	0.118	-0.062	0.125	0.506 [†]	0.290	-0.170	0.164
	높음	0.390 [†]	0.213	0.325	0.225	1.196*	0.479	-0.294	0.28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396**	0.139	0.367**	0.140	0.474	0.314	-0.154	0.175
	보통	0.029	0.107	0.018	0.120	0.219	0.284	0.072	0.134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433*	0.173	-0.452*	0.179	0.260	0.343	-0.157	0.199
	판매·서비스	-0.294 [†]	0.159	-0.303 [†]	0.169	0.185	0.322	-0.252	0.185
	농업·기능·기술직	-0.485*	0.191	-0.498*	0.208	0.282	0.382	-0.229	0.222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344**	0.119	-0.364**	0.125	0.160	0.208	0.294*	0.142
	무급가족종사자	-1.099***	0.146	-1.068***	0.231	-0.701*	0.319	-1.018***	0.192
남 편 변 수	연령					0.035 [†]	0.018	0.081***	0.012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57	0.248	-0.127	0.137
	높음					-0.736	0.582	0.459*	0.214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355	0.298	0.975***	0.160
	보통					-0.060	0.230	0.224	0.139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693*	0.306	-0.132	0.204
	판매·서비스					-0.633 [†]	0.345	0.279	0.205
가 족 변 수	농업·기능·기술직					-0.608*	0.292	-0.150	0.181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지위								
	자영업자					0.012	0.220	-0.317*	0.132
가 족 변 수	무급가족종사자					-0.425	0.606	-0.678 [†]	0.383
	가구소득(천만원)	-0.067**	0.025	-0.065*	0.026	-0.154*	0.064	-0.003	0.026
	미성년자녀수	-0.499*	0.222	-0.511*	0.223	0.013	0.338	-0.465	0.309
	부부의 연령차	-0.009	0.016	-0.012	0.022	-0.020	0.028	-0.016	0.018
Intercept		-2.641***	0.639	-2.324*	1.077	-3.387**	1.266	-0.379	0.815
ρ						0.029	0.644	-5.680***	0.805
N		1038		1038					
Log-likelihood		-447.46		-999.17					

주: †<0.1, *<0.05, **<0.01, ***<0.001

3. 연령그룹에 따른 배우자의 은퇴 결정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연구 및 기술통계 결과에 비추어 50대의 은퇴자와 60~75세 은퇴자가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앞서 다뤄진 분석을 연령 집단을 나누어 실시해보았다. 분석 결과, 배우자의 은퇴가 50대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0대 남성의 경우 아내의 은퇴가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오히려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낮추었다. 60세 이상 남편의 경우 아내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모두가 유의하게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아내에게 남편의 은퇴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아내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50대 아내의 은퇴에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정적(+, 은퇴 가능성 증가) 영향을 나타냈으며, 자발적인 은퇴는 유의한 부적(-, 은퇴 가능성 감소) 영향을 나타냈다.

〈표 4-12〉 연령그룹별 부부은퇴의 상호의존성 분석

	전연령		60세 미만 남편		60세 이상 남편	
	B	SD	B	SD	B	SD
아내의 은퇴	1.409***	0.157	1.169	0.809	1.234***	0.213
아내의 자발적 은퇴	0.245	0.361	0.833	1.029	0.807*	0.405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1.385***	0.157	-1.222**	0.447	0.848*	0.379
	전연령		60세 미만 아내		60세 이상 아내	
	B	SD	B	SD	B	SD
남편의 은퇴	0.292	0.401	1.101*	0.437	-0.668	0.668
남편의 자발적 은퇴	1.190	1.415	-1.124 [†]	0.667	1.428*	0.562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0.031	0.936	0.999*	0.422	-0.243	1.264

주: 1) [†]<0.1, *<0.05, **<0.01, ***<0.001

2) 각 분석의 결과표는 부록으로 첨부함.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 요약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연금재정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인 맥락과 고령자의 삶의 질 등의 사회·심리적 맥락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고령자의 은퇴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와 저축 결정은 대부분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부는 가구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동반의사결정과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은퇴결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은퇴자 개인의 변수뿐만 아니라 배우자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가 일반적인 현대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노동참여와 미래 연금소득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은퇴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상대의 은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배우자 은퇴의 자발성을 확인한 이유는 은퇴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해외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은퇴 맥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은퇴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노후소득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와 보완적 여가(complementary leisure)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건강문제나, 실업 등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동소득은 여전히 고령자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 은퇴의 영향과 분리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부부가 단일한 효용을 가진 것이 아니며, 생애에 걸쳐 권고와 타협

을 통해 동반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남편(아내)의 은퇴는 아내(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남편(아내)의 은퇴가 아내(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의 자발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남편의 은퇴가 아내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은퇴가 남편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과 다를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프로빗 분석과 이변량프로빗분석, 다변량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인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은퇴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어 <연구가설 1>을 지지한다. 특히 아내의 은퇴가 남편의 은퇴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동반은퇴(joint retirement)가 한국에서도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립 이변량 프로빗 결과 두 방정식의 상관계수인 ρ 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부부의 은퇴가 내생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실제 은퇴자 부부의 연령차와 은퇴년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는 3.5세인 반면, 부부 모두 은퇴한 경우의 25% 가량이 같은 년도에 은퇴하여 부부의 연령차이와 무관하게 동반은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동반은퇴의 원인을 보완적 여가나 배우자의 은퇴 인센티브(예: 연금 소득)의 일출효과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인 은퇴가 남성 은퇴자의 85%, 여성 은퇴자의 72%에 이르는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은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해외 주요 선행연구의 은퇴 맥락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은퇴의 자발성을 나누어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의 남성, 50대 여성 그룹에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도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기술통계분석 결과에서도 부부는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직업 등이 동질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부부가 유사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60대 남녀 모두 배우자의 자발적인 은퇴가 은퇴 가능성을 높여, 부부가 여가 생활을 함께 하거나, 노후 소득을 공유하면서 나타나는 동반은퇴가 60대 이상에서만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우자 은퇴의 자발성에 따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지지하였다.

셋째, 부부의 은퇴 영향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세하나, 여성의 돌봄 역할 등 전통적인 성역할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은퇴는 아내의 은퇴를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50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자발적인 은퇴는 오히려 은퇴 가능성을 줄이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은퇴 결정에 있어서 아내의 영향력이 남편의 영향력에 비하여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 우세 가설을 지지하는 주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녀가 상이하다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배우자의 비자발적인 은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부의 은퇴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남편은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은퇴 가능성이 줄어드는 추가노동자 효과가 관측된 반면, 50대 아내는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에 동반 은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남편이 건강문제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은퇴하였을 때 돌봄 제공을 위하여 함께 은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앞선 기술통계 분석 결과 남편은 자신의 건강문제로, 아내는 남편의 건강문제로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은퇴자 부부의 8.2%를 차지한 반면, 반대의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 이는 아내의 돌봄 부담이 남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남편은 생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외에도 남편은 자영업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역시 남성에 종속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구의 맥락, 특히 배우자의 은퇴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51~75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부부의 은퇴는 상호의존적이며, 배우자의 은퇴는 은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특성만을 살펴본 기존 국내 은퇴 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특히 부부가 서로의 은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과다식별 문제를 통제하고도 배우자의 은퇴가 은퇴결정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은퇴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노동참여 현황을 주요한 변수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발 더 나아가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 제도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부부 은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은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나, 서구 주요국에서는 동반은퇴를 고려하여 은퇴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연금 개혁이 있었다(Zweimüller, J. et al. 1996). 특히 남편의 은퇴에 따른 아내의 조기 은퇴가 남녀간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여성 노인의 경제적 안녕(well-being)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다(Hospido, 2015).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제도 성숙 시 부부의 동반은퇴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한 부부의 동반은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 하락 및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외의 주요 선행연구는 경제학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부부의 동반은퇴 맥락을 보완적 여

가 취향과 배우자 은퇴 인센티브의 일출 효과로 설명하였다. 즉, 부부의 동반은퇴는 자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의사가 아님에도 함께 은퇴하는 경향이 밝혀졌다. 이는 부부가 처한 유사한 노동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동반은퇴가 이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동반은퇴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의 비자발적 동반은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비자발적인 동반은퇴 현상이 포착된 만큼 향후 이를 위한 정책 대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문제 혹은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였으며, 특히 남편은 자신의 건강문제로, 아내는 남편의 건강문제로 은퇴하였다는 은퇴자 부부의 비율이 상당하였다. 이처럼 부부가 모두 건강문제로 노동시장을 퇴장할 경우 가구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간병 제공 및 경제적 부담이 빈곤의 주요한 원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김안나, 2006; 장미혜, 2013). 한국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하며, 노인의 자살률 문제도 심각한 만큼(OECD, 2014a), 고령 부부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동반은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의사결정 시 서로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단일한 효용을 갖고 있거나, 남편과 아내의 효용의 합이 부부의 효용이라는 경제학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부부 은퇴 연구에서는 부부가 은퇴 결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효용을 갖고 있으며, 서로에게 비대칭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부은퇴의 비대칭성이 은퇴맥락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은퇴 결정 전반에 있어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우세하나, 비자발적인 은퇴맥락, 특히 건강문제로 인한 돌봄 역할 수행은 여성에게 집중되었

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자원은 우세하나, 남성에 비하여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잦으며, 남편에 종속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갖는 비율이 높으므로 경제적으로는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남성 41.8%, 여성 47.2%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하여 5.4%p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OECD, 2011). 따라서 여성의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은퇴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돌봄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자료 및 분석방법 등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부부의 동반은퇴를 관측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생애 노동참여 경험에 있는 맞벌이 부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거나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령자의 이혼율 증가 등 결혼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은 고령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해외 주요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생애 노동 경험에 없는 배우자의 영향과 배우자 사별 또는 이혼 등이 노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Radl and Himmelreicher, 2014).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의 은퇴 환경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이외에 다양한 가족 구조를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모든 변수의 측정이 2012년 현재 시점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LoSA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은퇴자가 은퇴할 당시 건강상태나 소득 등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미 은퇴한 이들 중 은퇴 시점이 오래 경과한 경우는 은퇴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와 현재

의 시간차로 인하여 추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연구 대상자 중 은퇴 시점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76세 이상 초고령자를 제외하였으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악화 및 소득 감소문제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해당 변수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은퇴 여부와 은퇴 자발성이 응답자의 주관적 대답에 의존하였다는 측정의 한계가 있다. 은퇴자 중 과거에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다시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은퇴의 자발성 측정에 사용된 은퇴 원인에 관한 응답은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년은퇴를 은퇴의 1순위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2순위는 일하기 싫어서와 같은 자발적인 이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은퇴의 원인을 비자발적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국외 선행연구에서 은퇴의 원인 및 자발성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연구가 있다(Dorn and Sousa-Poza, 2010).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나. (2015).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3호, 48-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문일. (1996). 老人의 退職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大學院, 서울.
- 김안나. (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37-68.
- 김원섭·우해봉. (2008). 국민연금의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5(0), 111-139.
- 김지경.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진원. (2015). 한국 화재보험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실증연구. 西江經濟論集, 44(1), 57-91.
- 박경숙. (2003). 55 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성복. (2011).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대구.
- 박진희. (2009).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9(2), 43-65.
- 박현준·김경근. (2012). 한국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1966~2010, 교육사회학연구, 22(4), 113~139.
- 부가청. (2006). 국제비교 가능데이터 구축. 노동리뷰, 94-107.
- 손정연·한경혜. (2012). 결혼상태의 지속 및 변화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제자원 및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5(-), 5-40.
- 신명일, 김우식. (2004).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대처전략이 부부의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12(0), 313-331.
- 신혜숙. (20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및

-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J Korean Acad Nurs, 31(6), 1119-1128.
- 신화용·조병은.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우국희·주경희·이연순. (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281-304.
- 우혜경·조영태. (2013). 한국인 중,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조기은퇴. 한국노년학, 33(2), 397-418.
- 이기주·석재은. (2011).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7(1), 55-88.
- 이병희. (2012). 비공식근로와 빈곤. 한국사회정책, 19(1), 39-63.
- 이인정·한인영. (2010).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0), 197-223.
- 이지현·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70-205.
- 임소영·강민아·조성일. (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 임인숙. (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WIN), 1105-1127.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2SLS(2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장미혜. (2013). 여성노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생애사적 규명.
- 장지연·부가청. (2007). 우리나라 중·노년 인구의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30(2), 45-69.
- 조동훈. (2014). 고령자 은퇴시점 결정요인 분석. 산업관계연구, 24(1), 47-66.
- 최경숙·은영. (2000). 만성질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이론 구축. J Korean Acad Nurs, 30(1), 122-136.

- 최승현. (2006). 맞벌이가구의 은퇴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9(1), 129-152.
- 통계청. (2014). 2013년 맞벌이부부 현황. 보도자료.
- 한경혜. (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홍백의·신유미·공주영. (2009). 은퇴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503-522.
- 홍훈. (2013).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 새문사.
- Borjas, G. J. (2005). Labor Economics (3rd ed.). United States: The McGraw-Hill Irwin.
- Casanova, M. (2010). Happy together: A structural model of couples' joint retirement choic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Economics, UCLA, Los Angeles.
- Coile, C. (2004a). Retirement incentives and couples' retirement decisions. Topic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1).
- Coile, C. (2004b). Health shocks and couples' labor supply decis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enaeghel, K., Mortelmans, D., and Borghgraef, A. (2011). Spousal influence on the retirement decisions of single-earner and dual-earner coupl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3), 112-123.
- Dorn, D., and Sousa-Poza, A. (2010). 'Voluntary' and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an international analysis. Applied Economics, 42(4), 427-438.
- Ehrenberg, R. G., and Smith, R. S. (2012).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11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Ekerdt, D. J. (2010). Frontiers of Research on Work and Retiremen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5B(1), 69-80.
doi: 10.1093/geronb/gbp109
- England, P., and Farkas, G. (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New York: Aldine de Gruyter.
- Gujarati, D. N., Porter, D. C., (2009). 『(Gujarati의) 계량경제학』. 박완규, 홍성표. 역. 서울: 지필.
- Guo, D. (2013). *Happy Together Or Home Alone: A Structural Model Of The Role Of Health Insurance In Joint Retirement*. 15th Annual Joint Conference of the Retirement Research Consortium.
- Gustman, A. L., and Steinmeier, T. L. (1994). *Retirement in a family context: A structural model for husbands and wiv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ustman, A. L., and Steinmeier, T. L. (2000). *Retirement in Dual-Career Families: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3), 503-545. doi: 10.1086/209968
- Gustman, A. L., and Steinmeier, T. L. (2002).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retirement behavior within the famil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ustman, A. L., and Steinmeier, T. L. (2004).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retirement behaviour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9(6), 723-737.
- Henkens, K. (1999). *Retirement intentions and spousal support: A multi-actor approac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2), S63-S73.
- Henretta, J. C., and Angela, M. (1983). *Joint retirement in the dual worker family*. *Social forces*, 62(2), 504-520.
- Henretta, J. C., Chan, C. G., and O'rand, A. M. (1992). *Retirement*

- Reason Versus Retirement Process: Examining the Reasons for Retirement Typology. *Journal of Gerontology*, 47(1), S1-S7. doi: 10.1093/geronj/47.1.S1
- Ho, J.-H., and Raymo, J. M. (2009). Expectations and realization of joint retirement among dual-worker couples. *Research on Aging*, 31(2), 153-179.
- Honoré, B. E., and De Paula, Á. (2014). Interdependent durations in joint retirement: cemmap working paper CWP08/14, Centre for Microdata Methods and Practice.
- Hospido, L. (2015). pension reform and couples' joint retirement decisions. *IZA World of Labor*.
- Hospido, L., and Zamarro, G. (2014). Retirement patterns of couples in Europe: IZA Discussion Paper.
- Hurd, M. D. (1990). The joint retirement decision of husbands and wives *Issues in the Economics of Aging* (pp. 231-25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Jiménez-Martín, S., Labeaga, J. M., and Martínez-Granado, M. (1999). Health status and retirement decision for older european couples.
- Johnson, R. W., and Favreault, M. M. (2001). Retiring together or working alone: The impact of spousal employment and disability on retirement decisions: Urban Institute.
- Mankiw, N. G. (2013). 『맨큐의 경제학 6판』. 김경환, 김종석 역.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 Manser, M., and Brown, M. (1980). Marriage and household decision-making: A bargaining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1-44.
- Michaud, Pierre-Carl. (2003). Joint labour supply dynamics of older couples. IZA Discussion Paper No. 832.

- Michaud, Pierre-Carl, Van Soest, Arthur, and Yu, Zhiyu. (2014). Retirement of Couples: A Stated Preference Analysis. Netspar. Natioanl Institutes of Aging grated paper. www.netspar.nl/files/evenementen/2014-06-19%20ipw/papers/082%20zhiyu%20yu%201.pdf
- O'Rand, A. M., and Farkas, J. I. (2002). Couples' retirement tim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90s: The impact of market and family role demands on joint work exi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11-29.
- OECD. (2006). *Live longer, work longer*.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1).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3a).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3b).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4a).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4b). *OECD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OECD Publishing.
- Queiroz, B. L., and de Souza, L. R. (2013). Couple's behaviour in the Brazilian labour market: The influence of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married individuals' labour supply decisions: Working Paper,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 Radl, J., and Himmelreicher, R. K. (2015). The Influence of Marital Status and Spousal Employment on Retirement Behavior in Germany and Spain. *Research on Aging*, Vol. 37, No. 4, 361-387

- Shultz, K. S., Morton, K. R., and Weckerle, J. R. (1998). The Influence of Push and Pull Factors on Voluntary and Involuntary Early Retirees' Retirement Decis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1), 45-57.
- Smith, S. (2006).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d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130-C148.
- Syse, A., Solem, P. E., Ugreninov, E., Mykletun, R., and Furunes, T. (2014). Do Spouses Coordinate Their Work Exits? A Combined Survey and Register Analysis From Norway. *Research on Aging*.
- Szinovacz, M. E., and Davey, A. (2005). Predictors of perceptions of involuntary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5(1), 36-47.
- Van Solinge, H., and Henkens, K. (2007). Involuntary retirement: The role of restrictive circumstances, timing, and social embeddednes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5), S295-S303.
- Zhu, Rong. (2014).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Australian mature-aged men: the role of spousal participation.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Zweimüller, J., Winter-Ebmer, R., and Falkinger, J. (1996). Retirement of spouses and social security reform. *European Economic Review*, 40(2), 449-472.

부 록

〈부표 1〉 남성 연령그룹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60세 미만 남성				60세 이상 남성			
		N=408				N=630			
더미변수		남편		아내		남편		아내	
		N	%	N	%	N	%	N	%
교육 수준	낮음 (기준)	98	24.0	148	36.3	358	56.8	481	76.4
	중간	214	52.5	215	52.7	195	31.0	122	19.4
	높음	96	23.5	45	11.0	77	12.2	27	4.3
건강 상태	좋음	228	55.9	228	55.9	197	31.3	169	26.8
	보통	138	33.8	146	35.8	278	44.1	309	49.1
	나쁨	42	10.3	34	8.3	155	24.6	152	24.1
직업	관리·사무직 (기준)	105	25.7	67	16.4	98	15.6	60	9.5
	단순노무	70	17.2	94	23.0	170	27.0	202	32.1
	판매·서비스	55	13.5	182	44.6	92	14.6	209	33.2
	농업·기능·기술직	178	43.6	65	15.9	270	42.9	159	25.2
종사상의 지위	임금노동자 (기준)	206	50.5	236	57.8	291	46.2	308	48.9
	자영업자	193	47.3	93	22.8	315	50.0	145	23.0
	무급가족종사자	9	2.2	79	19.4	24	3.8	177	28.1
연속변수		N	Mean	SD		N	Mean	SD	
남편 변수	연령	408	55.6	2.3		630	66.5	4.5	
아내 변수	연령	408	53.5	2.3		630	62.1	5.2	
가족 변수	가구소득(천만원)	408	4.5	2.8		630	2.6	1.8	
	미성년자녀수	408	0.2	0.4		630	0.0	0.1	
	부부의 연령차	408	2.1	2.3		630	4.4	3.2	

〈부표 2〉 여성 연령그룹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60세 미만 여성				60세 이상 여성			
		N=612				N=426			
더미변수		남편		아내		남편		아내	
		N	%	N	%	N	%	N	%
	낮음 (기준)	200	32.7	281	45.9	256	60.1	348	81.7
교육 수준	중간	283	46.2	279	45.6	126	29.6	58	13.6
	높음	129	21.1	52	8.5	44	10.3	20	4.7
	좋은	305	49.8	300	49.0	120	28.2	97	22.8
건강 상태	보통	226	36.9	245	40.0	190	44.6	210	49.3
	나쁨	81	13.2	67	11.0	116	27.2	119	27.9
	관리·사무직 (기준)	143	23.4	92	15.0	60	14.1	35	8.2
직업	단순노무	123	20.1	154	25.2	117	27.5	142	33.3
	판매·서비스	84	13.7	265	43.3	63	14.8	126	29.6
	농업·기능·기술직	262	42.8	101	16.5	186	43.7	123	28.9
종사상의 지위	임금노동자 (기준)	319	52.1	349	57.0	178	41.8	195	45.8
	자영업자	279	45.6	142	23.2	229	53.8	96	22.5
	무급가족종사자	14	2.3	121	19.8	19	4.5	135	31.7
연속변수		N	Mean	SD		N	Mean	SD	
남편 변수	연령	612	58.1	4.2		426	68.1	4.3	
아내 변수	연령	612	54.5	2.5		426	64.8	3.9	
	가구소득(천만원)	612	4.0	2.6		426	2.4	1.9	
가족 변수	미성년자녀수	612	0.1	0.4		426	0.0	0.0	
	부부의 연령차	612	3.6	3.1		426	3.3	3.0	

〈부표 3〉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남_연령	-																						
2.남_중간교육	-0.23**	-																					
3.남_높은교육	-0.16**	-0.36**	-																				
4.남_건강나쁨	0.26**	-0.08**	-0.13**	-																			
5.남_건강보통	0.05	-0.07	0.01	-0.40***	-																		
6.남_단순노무	0.10**	-0.02	-0.14**	0.07*	-0.01	-																	
7.남_서비스판매	0.00	0.09**	-0.05	-0.03	0.01	-0.22***	-																
8.남_농업기술	0.03	-0.05	-0.24**	0.04	-0.02	-0.48***	-0.35***	-															
9.남_자영업	0.09**	0.02	-0.13**	0.05	0.01	-0.40***	0.16**	0.33***	-														
10.여_무급	0.04	0.06	-0.02	0.01	0.00	-0.05	0.26***	-0.11**	-0.18***	-													
11.여_연령	0.88**	-0.20**	-0.15**	0.23***	0.06†	0.10**	-0.01	0.03	0.09**	0.07*	-												
12.여_중간교육	-0.38**	0.38**	0.20**	-0.14***	-0.05	-0.10**	0.08*	-0.15***	-0.02	0.00	-0.37***	-											
13.여_높은교육	-0.13**	-0.15**	0.52**	-0.10**	0.01	-0.08*	-0.06†	-0.17***	-0.12**	-0.01	-0.09**	-0.19***	-										
14.여_건강나쁨	0.29**	-0.12**	-0.07*	0.27***	-0.01	-0.01	-0.01	0.08*	0.08*	0.02	0.29***	-0.17***	-0.06†	-									
15.여_건강보통	0.08**	-0.03	-0.06†	0.03	0.28***	0.05	-0.01	-0.01	-0.02	-0.01	0.08**	-0.05	-0.06	-0.41***	-								
16.여_단순노무	0.09**	-0.09	-0.13**	0.11**	-0.01	0.18***	-0.11	0.01	-0.06	-0.09**	0.09***	-0.17***	-0.15***	0.01	0.12**	-							
17.여_서비스판매	-0.15**	0.15	0.05†	-0.06†	0.00	-0.03	0.25***	-0.18***	-0.08***	0.14***	-0.16***	0.23***	-0.02	-0.03	-0.08*	-0.49***	-						
18.여_농업기술	0.16**	-0.08	-0.17**	0.01	0.00	-0.08**	-0.14***	0.30***	0.22***	-0.04	0.17***	-0.18***	-0.12***	0.07*	0.00	-0.33***	-0.41***	-					
19.여_자영업	-0.01	0.02	0.06*	-0.01	0.07*	-0.03	0.07*	-0.09**	-0.08*	0.31***	0.00	0.07	0.03	0.01	0.00	-0.26***	0.30***	-0.05†	-				
20.여_무급	0.15**	-0.05	-0.15**	0.03	0.00	-0.20***	0.11	0.21***	0.51***	-0.08*	0.16***	-0.11**	-0.10**	0.11**	-0.01	-0.07*	-0.14***	0.35***	-0.31***	-			
21.가구소득	-0.41**	0.13	0.31**	-0.20***	-0.07*	-0.14***	0.06	-0.13***	-0.05	0.04	-0.39***	0.27***	0.26***	-0.20***	-0.07*	-0.16***	0.11***	-0.17***	0.07*	-0.09**	-		
22.미성년자녀	-0.26**	0.02	0.17**	-0.05	-0.08*	-0.02	0.01	-0.04	-0.01	-0.03	-0.25***	0.11**	0.12***	-0.08**	-0.04	0.00	0.03	-0.06†	-0.04	-0.03	0.09**	-	
23.부원령차	0.41**	-0.09**	-0.04	0.11**	-0.01	0.02	0.02	0.01	0.01	-0.05	-0.07	-0.10	-0.08	0.04	0.01	0.02	-0.01	0.00	-0.02	0.02	-0.12***	-0.08*	-

주: †<0.1, **<0.05, ***<0.01, ****<0.001

〈부표 4〉 남편의 연령그룹별 은퇴 결정요인 분석

		60세 미만 남편 그룹				60세 이상 남편 그룹			
		남편의 은퇴(은퇴=1)		아내의 은퇴(은퇴=1)		남편의 은퇴(은퇴=1)		아내의 은퇴(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B	SD
남 편 변 수	아내의 은퇴	1.169	0.809			1.234***	0.213		
	연령	0.073	0.053			0.046**	0.014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376	0.242	0.144	0.239	-0.081	0.129	0.077	0.146
	높음	-0.256	0.328	0.364	0.322	0.207	0.214	0.193	0.269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685*	0.294	-0.128	0.301	0.767***	0.155	-0.047	0.170
	보통	0.325	0.209	0.083	0.189	0.191	0.131	-0.021	0.145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232	0.291	-0.207	0.265	-0.560†	0.200	0.197	0.215
	판매·서비스	-0.060	0.323	-0.457	0.378	-0.121	0.214	0.121	0.237
	농업·기능·기술직	-0.617*	0.291	-0.242	0.231	-0.444*	0.189	0.108	0.204
아 내 변 수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자영업자	-0.022	0.223	-0.270	0.189	-0.550**	0.143	0.055	0.151
	지위								
	무급가족종사자	0.844	0.535	-4.314	117.540	-0.431	0.333	-1.051**	0.387
	연령			0.076†	0.041			0.050**	0.014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250	0.209			-0.032	0.179
	높음			-0.139	0.359			0.518	0.354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338	0.318			0.369*	0.167
	보통			0.210	0.186			-0.037	0.143
	(기준=관리·사무직)								
가 족 변 수	직업								
	단순노무			0.080	0.286			-0.712**	0.231
	판매·서비스			0.103	0.251			-0.567**	0.214
	농업·기능·기술직			-0.122	0.323			-0.719**	0.246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자영업자			0.084	0.193			-0.165	0.159
	지위								
	무급가족종사자			-0.573*	0.277			-1.256***	0.181
	가구소득(천만원)	-0.016	0.035	-0.052	0.036	-0.024	0.035	-0.103**	0.039
	미성년자녀수	-0.020	0.246	-0.441†	0.236	-4.013	98.981	-3.788	121.788
	부부의 연령차	-0.030	0.041	0.007	0.040	0.011	0.018	-0.012	0.022
	Intercept	-5.156†	2.967	-4.575*	2.310	-3.523**	0.943	-2.573*	1.005
	ρ			-0.719*	0.343			-0.653***	0.127
N		408				630			
Log-likelihood		-265.65				-642.40			

주: †<0.1, *<0.05, **<0.01, ***<0.001

〈부표 5〉 아내의 연령그룹별 은퇴 결정요인 분석

변수	60세 미만 아내 그룹				60세 이상 아내 그룹			
	아내의 은퇴(은퇴=1)		남편의 은퇴(은퇴=1)		아내의 은퇴(은퇴=1)		남편의 은퇴(은퇴=1)	
	B	SD	B	SD	B	SD	B	SD
남편의 은퇴	1.101*	0.437			-0.668	0.668		
연령	0.033	0.027			0.056*	0.024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05	0.139	-0.092	0.203	0.213	0.212	0.167	0.257
높음	0.148	0.257	-0.161	0.347	0.939*	0.374	0.380	0.44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384*	0.193	-0.190	0.252	0.406†	0.215	0.248	0.232
보통	0.052	0.135	0.207	0.164	-0.123	0.191	0.107	0.197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157	0.213	-0.270	0.261	-0.612†	0.341	0.203	0.302
판매·서비스	-0.136	0.188	-0.214	0.228	-0.367	0.303	-0.131	0.312
농업·기능·기술직	-0.280	0.244	-0.191	0.298	-0.569†	0.334	0.042	0.332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자영업자	-0.216	0.149	0.037	0.181	-0.444†	0.261	0.567**	0.217
지위								
무급가족종사자	-0.710*	0.214	-0.742**	0.288	-1.554***	0.248	-1.277***	0.250
연령								
(기준=낮음)								
교육 수준								
중간			-0.160	0.199			-0.156	0.171
높음			0.326	0.263			0.089	0.341
(기준=좋은)								
건강 상태								
나쁨			0.750**	0.209			0.784**	0.209
보통			0.215	0.165			0.207	0.189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270	0.233			-0.564*	0.253
판매·서비스			-0.074	0.256			-0.083	0.309
농업·기능·기술직			-0.365†	0.213			-0.422†	0.244
(기준=임금노동자)								
종사 상의								
자영업자			-0.209	0.172			-0.311	0.192
지위								
무급가족종사자			-0.137	0.448			-0.714	0.590
가								
Log가구소득(천만원)	-0.047	0.030	-0.031	0.032	-0.094*	0.042	-0.042	0.044
미성년자녀수	-0.402†	0.218	-0.272	0.255	-		-	
부부의 연령차	-0.035†	0.021	-0.048	0.038	0.013	0.032	0.002	0.028
Intercept	-2.198	1.536	-6.659**	1.760	-2.704†	1.597	-5.497**	1.517
ρ			-0.703*	0.219			0.545	0.415
N	612				426			
Log-likelihood	-463.49				-432.58			

주: †<0.1, *<0.05, **<0.01, ***<0.001

〈부표 6〉 60세 미만 남편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아내 은퇴의 자발성

		남편의 은퇴 (은퇴=1)		아내의 자발적 은퇴 (은퇴=1)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남편 변수	아내의 자발적은퇴	0.833	1.029				
	아내의 비자발적은퇴	-1.222**	0.447				
	연령	0.105*	0.049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336	0.242	0.250	0.402	0.210	0.258
	높음	-0.144	0.321	0.525	0.494	0.286	0.355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926**	0.275	-4.479	269.202	0.179	0.318
	보통	0.484*	0.200	-0.161	0.291	0.287	0.215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345	0.285	0.223	0.372	-0.223	0.305
	판매·서비스	-0.156	0.320	-0.541	0.561	-0.644	0.520
	농업·기능·기술직	-0.540 [†]	0.297	-0.519	0.339	0.075	0.258
	(기준=임금노동자)						
아내 변수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381 [†]	0.230	0.484	0.279	-0.738**	0.220
	무급가족종사자	0.497	0.560	-3.467	33.499	-3.184	15.797
	연령			0.063	0.061	0.061	0.048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103	0.327	-0.173	0.236
	높음			0.264	0.512	-0.372	0.423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4.051	177.468	0.986**	0.297
	보통			-0.073	0.315	0.264	0.205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379	0.424	-0.039	0.320
	판매·서비스			0.228	0.391	-0.086	0.260
	농업·기능·기술직			-0.146	0.569	-0.067	0.346
	(기준=임금노동자)						
가족 변수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113	0.290	0.000	0.221
	무급가족종사자			-0.755	0.460	-0.125	0.319
	로그가구소득(천만원)	-0.031	0.034	-0.023	0.060	-0.017	0.035
	미성년자녀수	-0.102	0.234	-0.478	0.359	-0.160	0.245
	부부의 연령차	-0.044	0.043	-0.062	0.064	0.039	0.047
Intercept		-6.466*	2.743	-4.940	3.444	-4.437	2.719
ρ				-0.601	0.421	0.696*	0.288
N		408					
Log-likelihood		-288.35					

주: [†]<0.1, *<0.05, **<0.01, ***<0.001

〈부표 7〉 60세 이상 남편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아내 은퇴의 자발성

		남편의 은퇴 (은퇴=1)		아내의 자발적 은퇴 (은퇴=1)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남편 변수	아내의 자발적 은퇴	0.807*	0.405				
	아내의 비자발적 은퇴	0.848*	0.379				
	연령	0.056**	0.015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049	0.136	0.543**	0.204	-0.167	0.149
	높음	0.336	0.215	0.474	0.354	-0.085	0.273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822***	0.163	-0.083	0.256	0.007	0.174
	보통	0.200	0.136	0.090	0.201	-0.012	0.152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589**	0.205	0.183	0.275	0.131	0.230
	판매·서비스	-0.154	0.222	-0.358	0.321	0.293	0.266
	농업·기능·기술직	-0.496*	0.193	-0.347	0.272	0.221	0.217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아내 변수	자영업자	-0.634***	0.155	0.482*	0.212	-0.133	0.156
	무급가족종사자	-0.610 [†]	0.357	-2.050	2.907	-0.912*	0.403
	연령			0.024	0.021	0.042**	0.015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117	0.244	0.024	0.201
	높음			-0.031	0.434	0.469	0.434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325	0.260	0.427*	0.183
	보통			-0.150	0.200	-0.056	0.157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578*	0.287	-0.458 [†]	0.253
	판매·서비스			-0.530 [†]	0.271	-0.193	0.251
	농업·기능·기술직			-0.713*	0.347	-0.373	0.272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가족 변수	자영업자			0.047	0.224	-0.319 [†]	0.190
	무급가족종사자			-0.835**	0.299	-1.098***	0.205
	로그가구소득(천만원)	-0.042	0.038	0.024	0.052	-0.133**	0.047
	미성년자녀수	-1.921	2.829	-1.131	2.806	-0.925	2.772
	부부의 연령차	0.003	0.019	-0.013	0.033	-0.018	0.023
Intercept		-3.931***	0.969	-2.552 [†]	1.465	-2.465*	1.077
ρ				-0.194	0.228	-0.351	0.245
N		630					
Log-likelihood		-737.20					

주: [†]<0.1, *<0.05, **<0.01, ***<0.001

〈부표 8〉 60세 미만 아내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남편 은퇴의 자발성

		아내의 은퇴 (은퇴=1)		남편의 자발적 은퇴 (은퇴=1)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아내 변수	남편의 자발적은퇴	-1.124 [†]	0.667				
	남편의 비자발적은퇴	0.999 [*]	0.422				
	연령	0.038	0.026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074	0.138	0.678	0.451	-0.272	0.213
	높음	0.231	0.257	1.379 [†]	0.742	-0.494	0.364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371 [†]	0.191	0.075	0.517	-0.139	0.264
	보통	0.112	0.137	0.565 [†]	0.326	0.185	0.174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150	0.211	0.072	0.516	-0.354	0.272
	판매·서비스	-0.116	0.187	0.114	0.478	-0.335	0.237
	농업·기능·기술직	-0.246	0.243	0.153	0.635	-0.339	0.317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201	0.147	-0.005	0.305	0.130	0.188
	무급가족종사자	-0.794 ^{**}	0.213	-3.170	18.225	-0.572 [†]	0.293
남편 변수	연령			-0.004	0.055	0.123 ^{**}	0.033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685	0.458	-0.065	0.203
	높음			-1.486 [*]	0.639	0.602 [*]	0.272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415	0.377	0.729 ^{**}	0.220
	보통			-0.145	0.294	0.145	0.178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850 [†]	0.435	0.013	0.245
	판매·서비스			-3.686	65.901	0.264	0.279
	농업·기능·기술직			-0.624 [†]	0.355	-0.167	0.233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043	0.297	-0.223	0.184
	무급가족종사자			1.389 [†]	0.726	-0.580	0.546
가족 변수	가구소득(천만원)	-0.058 [†]	0.030	-0.114	0.087	-0.015	0.031
	미성년자녀수	-0.407 [†]	0.217	-0.050	0.407	-0.461	0.339
	부부의 연령차	-0.029	0.021	0.025	0.060	-0.076 [†]	0.041
	Intercept	-2.440	1.484	-1.153	3.259	-7.841 ^{***}	1.860
ρ				0.752 [*]	0.335	-0.703 ^{**}	0.192
N		612					
Log-likelihood		-487.52					

주: †<0.1, *<0.05, **<0.01, ***<0.001

〈부표 9〉 60세 이상 아내의 은퇴 결정 요인 분석: 남편 은퇴의 자발성

		아내의 은퇴 (은퇴=1)		남편의 자발적 은퇴 (은퇴=1)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은퇴=1)	
변수		B	SD	B	SD	B	SD
아내 변수	남편의 자발적 은퇴	1.428*	0.562				
	남편의 비자발적 은퇴	-0.243	1.264				
	연령	0.045	0.035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072	0.214	0.552	0.432	-0.067	0.268
	높음	0.678 [†]	0.397	1.177	0.733	-0.211	0.454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261	0.214	0.866*	0.416	-0.139	0.257
	보통	-0.178	0.195	0.296	0.366	-0.026	0.208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762*	0.334	0.325	0.509	0.013	0.314
	판매·서비스	-0.409	0.308	0.133	0.510	-0.271	0.337
	농업·기능·기술직	-0.658*	0.333	0.104	0.556	-0.100	0.343
남편 변수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616*	0.263	0.150	0.323	0.487*	0.217
	무급가족종사자	-1.369**	0.384	-0.671 [†]	0.395	-1.149**	0.312
	연령			0.015	0.037	0.071**	0.023
	(기준=낮음)						
	교육수준						
	중간			0.176	0.291	-0.156	0.195
	높음			-0.738	0.727	0.546	0.450
	(기준=좋은)						
	건강상태						
	나쁨			-0.909*	0.402	1.129***	0.226
	보통			-0.307	0.282	0.319	0.209
	(기준=관리·사무직)						
	직업						
	단순노무			-0.325	0.429	-0.278	0.328
	판매·서비스			-0.233	0.436	0.199	0.389
	농업·기능·기술직			-0.438	0.428	-0.093	0.340
가족 변수	(기준=임금노동자)						
	종사상의 지위						
	자영업자			0.361	0.331	-0.465*	0.236
가족 변수	무급가족종사자			-2.169	4.086	-0.624	0.468
	로그가구소득(천만원)	-0.074 [†]	0.043	-0.212 [†]	0.109	-0.014	0.046
	부부의 연령차	-0.004	0.043	-0.005	0.050	0.007	0.030
Intercept		-2.047	2.117	-2.332	2.631	-5.150**	1.550
ρ				-0.537	0.546	0.295	0.837
N		426					
Log-likelihood		-480.69					

주: [†]<0.1, *<0.05, **<0.01, ***<0.001

Abstract

Dual Earning Couples' Interdependent Retirement Decision : Focusing on Spouses' Retirement and Its Voluntariness

Ham, Sunyu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tirement decision has been deeply studied in various area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field. Though the broad range of research, the majority of these studies has been solely focused on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ircumstances as determinants of retirement decision. However, saving and consuming decisions are made by family unit and couples are using joint determinant process for it. Therefore, retirement research should consider not only personal circumstances, but also characteristics of family context.

Furthermore, dual earning couples, which are typical form of current families, are much complicated in making retirement decision. It is because wives and husbands are simultaneously affecting each other's labor participation and future retirement income.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pouse's retirement on retirement decision making.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ceding oversea researches since it attempted to prove the influence of voluntariness of spouse's retirement. The central assumption of preceding researches is that the retirement is the "voluntary" choice. That's why most of researches pointed reasons of joint retirement as spillover effect of spouses' retirement incentives or complementary leisure between husbands and wives. However, the retirement circumstance of Korea is quite different from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retirement income. Most of aged people in Korea retire due to the involuntary reasons such as health problems and unemployment. Labor income is still the major resource of income for aged Korea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effect between partner's voluntary retirement and involuntary retirement.

To examine the effect of spouse's retirement on retirement decision, this study used instrumental variable which is applied in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nd multivariate probit analysis. Since wives and husbands influence each other's retirement decision "simultaneously", the estimation could be biased with assumption that spouse's retirement is an exogenous variable.

Hence, this study treated the spouse's retirement as endogenous variable. Using data from 4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it conducted analysis on 1,038 dual-earner couples aged 51~7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isted below.

First and foremost, the husbands who have retired wife are more likely retire from labor market than who have working wife.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tirement decision is not only affected by personal circumstances but also family context. Second, the spouse's involuntary retirement is also significant predictor of retirement. This result coincides with descriptive analysis which showed that education level, jobs, and status of work are associated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ird, while effect of wives' retirement is stronger than husbands', women's role of caring is maintained. Wives' retirement i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husbands' retirement, whereas husbands' retirement is not. However, in details, husbands aged 50's are more likely stay in labor market if wives are retired involuntarily (added worker effect). In contrast, wives aged under 60 are more likely retire if husbands are retired involuntarily (discouraged effect).

These findings carry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retirement decision in family context which hasn't been dealt in Korea. Second, this study identified involuntary joint retirement which could cause the decline of family income and the poverty. Lastly, wives and husbands influence each other's retirement decision

unsymmetrically. Though wives' effect is stronger than husbands, wives are burdened by caring the unhealthy spouse. This implies both of wives' stronger social resource and economic vulnerability. While wives have more people other than husbands who can enjoy leisure with, they are prone to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caring burden and subordinate working position.

This study is not without limitation. First, this study couldn't represent total aged in Korea because its subjects are only couples who have working experiences. Second,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some of variables need attention to interpret. It means that there could be estimation errors due to the time gap between the retirement and survey.

Keywords: retirement, joint retirement, joint decision making process of couple, involuntary retirement, bivariate probit, welfare policy for aged